


# 速記界

第 11 號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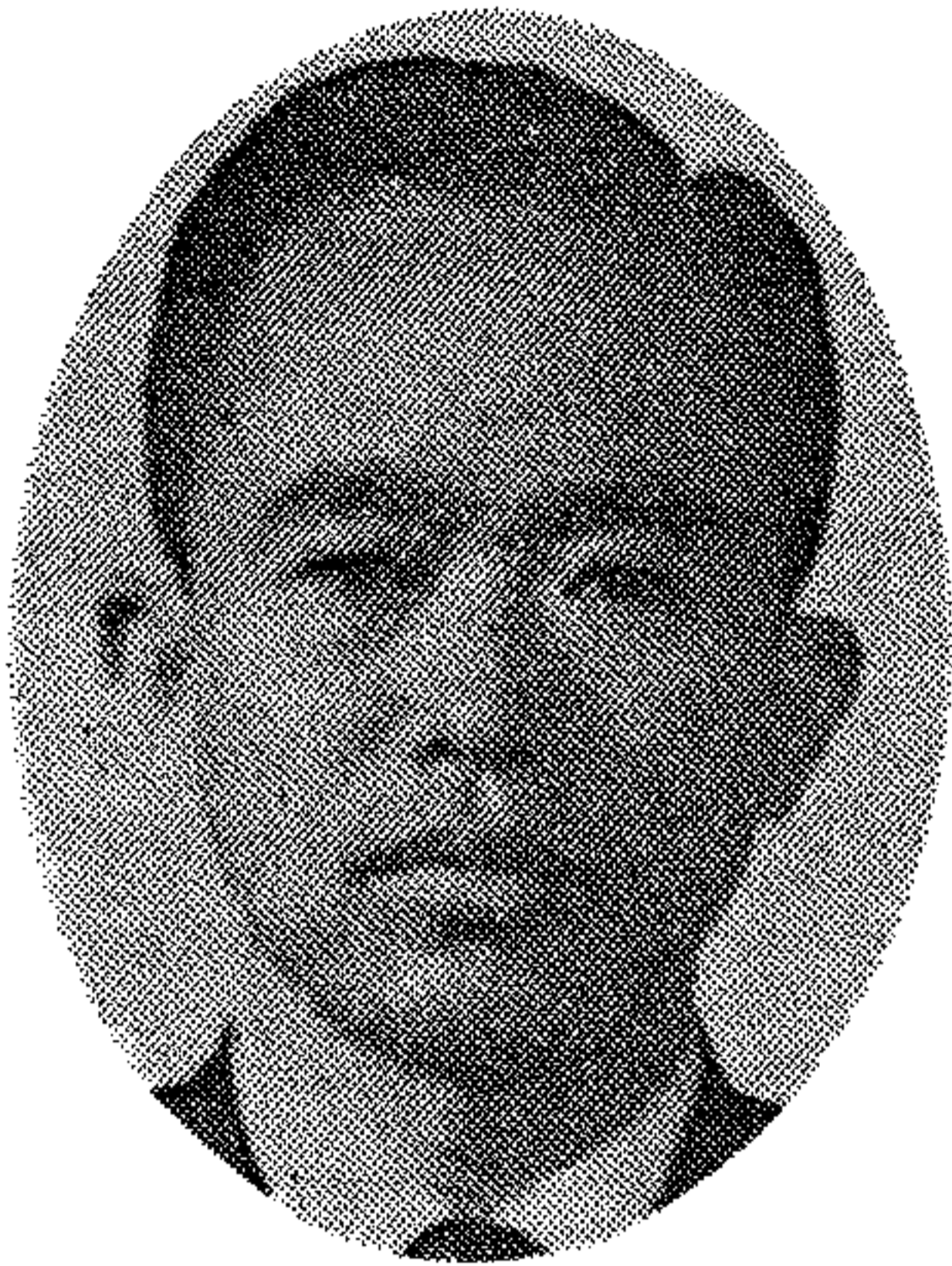
速記發表 90周年을 맞는			
	日本速記界를 慶賀하며 .....	副會長	金 鎮 基..... 2
	速記士에 대한 職業觀.....		孫 弘 基..... 3
	第11回 速記講習 .....		申 世 華..... 5
	덜쓰고 다 읽어야.....		姜 駿 遠..... 7
	 장님 코끼리다리 더듬다.....		李 東 一.....10
	 「마나스루」登攀記 (2) .....		崔 錫 模.....15
	 速記士를 위한 健康教室 (1).....		梁 源 龍.....20
隨 筆	速記士志望生에게 .....		朴 鍾 洽.....23
	水仙花.....		金 銀 淑.....25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		河 大 煥.....27
	瞬間의 思考 .....		朴 萬 基.....30
	● 資格檢定施行細則 .....		.....32
● 會員名單 .....		.....34	

題 字 · 海汀 朴 泰 俊  
 表紙그림 · 蔡 康 熙  
 寫 眞 · 金 善 弼



# 速記發表 90周年을 맞는 日本 速記界를 慶賀하며

副會長 金 鎮 基



오는 10月 28日은 이웃나라 日本의 速記界가 日本速記發表 90周年을 맞는 紀念日이다. 歴史的으로 日本速記의 發達과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는 우리 韓國의 速記人들은 여러가지 어려운 與件들을 克服하고 1世紀동안을 꾸준히 發展하여 日本文化에 있어서 占하는 現位置로 보나 速記의 普及發達面에 있어서 눈부신 發展을 이룩한 日本速記界에 대하여 眞心으로 慶賀해 마지않는 바이다. 1882년 日本速記의 元祖라 할 수 있는 田鎖綱紀氏가 最初의 速記講習會를 開催한 날이 바로 10月 28日이며 그 講習會의 修了生中 若林珪藏과 林茂淳 등이 처음으로 速記實務를 할 수 있었다 해서 이날을 日本語速記誕生의 날로 잡고 있는 것이다. 勿論 速記라는 것이 日本에 紹介가 된것은 그 보다 훨씬 以前 1867年(慶應 4年)에 黒田이란 사람이 「西

洋事情」이란 冊子 風土編에서 「疾書術」이란 解説로 一般에게 紹介가 된 것으로 「日本速記 80年史」에 記錄이 되어있고 田鎖氏가 이 講習會를 열 當時 田鎖氏의 速記方式 外에도 몇가지 다른 試圖들이 있었으나 그 結實을 보지 못했고 심지어 日本語速記 不可能論을 一部에서 들고 나서는 가운데 日本語 速記가 可能함을 實證하여 그 結果 日本語速記가 日本文化에 있어서 끼친 다른 공헌은 그만두고 소위 第1回 帝國議會서부터 오늘날까지 完全한 記錄을 保存케 했다는 것만해도 田鎖氏가 1894년에 發明 公益에 대한 功이 認定되어 藍綬褒章이란 훈장을 받고 이어 1896년에는 帝國議會의 承認을 얻어 年金 300圓終身下賜라는 아주 破格的인 特別年金을 받기에 이른 것은 그의 척척한 功勞를 생각할 때 당연한 榮譽라고 생각된다.

물론 日本速記界가 오늘날과 같은 터전을 이루는데 있어서는 그 創案된 速記法을 改良하고 普及시켜온 많은 사람들의 피나는 努力이 숨어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日本의 速記가 呱呱의 聲을 울린지 90周年! 그동안 日本의 歴史도, 크게는 世界 第2次大戰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파란을 겪는 동안에도 꾸준히 發展을 거듭하여 오늘날 수많은 速記人들이 議會, 言論 其他 各分野에서 눈부신 活動을 하고 있음을 볼 때 부러움과 함께 讚辭를 보내는 바이다.

특히 그동안 우리 速記界의 發展을 위해 資料의 提供 등 여러가지로 本協會에 協助를 아끼지 않았던 日本速記人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 심심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 速記士에 對한 職業觀

—女性速記士의 현저한 進出을 中心으로—

孫 弘 基

## 1. 序 論



職業의 定義를 국어사전에 보면 날마다 종사하고 있는 업무 또는 살기위

하여 하는 일이라고 적혀있다. 어떻게 定義를 하든 아주 特殊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모든 사람이 職業을 가져야 하고 갖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通例이거나 위로는 大統領으로부터 아래로는 구두 닙이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는 數백가지의 職業이 存在하고 있다.

그 많은 職業中에서 速記士라는 職業에 대해 갖는 一般 사람들의 인식과 本意든 他意든 速記士라는 職業을 擇해서 生業을 維持하고 있는 速記士 自身들의 價値觀이라고 할까 職業觀에 대해서 특히 近年에 이르러 女性速記士의 현저한 進出을 中心으로 考察해 보고자 한다.

## 2. 一般的인 認識

速記士라는 職業에 대한 一般的인 認識은 두가지로 우선 分類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하나는 실제로 速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모르는 大部分의 사람들로써 그런 사람들은 그저 기계적으로 그것도 速筆로 말을 받아 적는 職業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大部分이고 따라서 어떤 특별한 知識이 없이는 어느정도 배우면 누구나 從事할 수 있는 職業으로 알고 있다.

다른 하나의 경우는 速記라고 하는것을 어느정도 理解를 하고 실제로 그 혜택을 입는다고 할까 利用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大部分은 錄音機의 代用品 정도로 아는 사람이 많으며 어느 工場의 숙련공이 그 職業에 숙련이 되고 보니까 一般 사람들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速度로 能率을 올리는 것을 보고 그 능숙함에 경탄을 하는 정도로 認識하고 있는 정도다.

## 3. 速記士 自身들의 職業觀

大部分의 경우 高等學校를 갓 卒業한 사람들이 꽤 甚한 期待를 가지고 技術을 習得하여 職業速記士가 되기 까지에는 다른 어느 種類의 職業訓練보다 고된 訓練을 거쳐 그 中에서도 一般적으로 10% 以內的 사람들이 선택되는 職業만큼 우선 矜持를 가질만 하다. 또 실제로 「에리트」意識을 가지고 自己職業에 臨하기도 한다. 그러나 不過 몇個月이 못가서 先輩들의 영향을 받아 自己職業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다.

即 技術職 特有的의 停滯性으로 因한 先輩들의 沈滯相을 보고 회의에서 失望을 느끼고 一部 사람들은 自己自身은 先輩들의 前



轍을 밟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脫出口를 찾고자 한다.

#### 4. 女性速記士의 경우

女性速記士의 경우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원래 速記士라는 職業 自體가 섬세한 감각을 要하는 點이라든지 非活動的이라든지 多少 女性적인 職業이라고 할 수 있는데다가 教師職과 더불어 가장 男女의 差別이 없고 報酬面에서도 女性으로서는 상당히 業務量이 폭주하는 定期國會때 以外에는 비교적 충분한 餘暇가 있어 이를 活用할 수 있다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女性의 職業으로서 손꼽히는 職業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職業의 適性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近年에 와서 國會速記士의 採用試驗 結果를 보면 女性速記士가 過半數를 넘는 實情으로 最近 3年間의 男女別 採用관계와 全體 速記士中 女性速記士가 차지하는 比率를 보면 상당히 거니와 이 상태대로 나간다면 數年內에 女性速記士가 半數를 차지하게 될 날이 머지 않는 듯하다.

#### 5. 女性速記士 進出率이 높아지는 理由

女性速記士의 進出率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速記士라는 職業戰線에서 男性이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 理由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 그 原因을 따져보면 速記士뿐만 아니라 女性의 社會進出이 各分野에 있어서 뚜렷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社會的 傾向에서 온다고 볼 수도 있지만 速記士의 絕對的 公需 不足을 메꾸기 위해 1968년부터 國費養成機關을 國會안에 설치한 以後로 줄곧 이에 관여해온 筆者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여러가지 複合的인 要因들이

作用을 하고 있겠지만 가장 큰 原因은 亦是 速記士에 대한 價値觀의 變遷에 起因한다고 판단이 된다.

即 앞에서도 言及을 했거니와 많은 경쟁자를 물리쳐 선택을 받았다는 「에리트」意識이라든가 산 歷史의 記錄者라는 自負心도 잠깐이고 昇進이나 他職種에의 轉出等의 脫出口 없이 停滯되어 있는 先輩들을 볼 때 意慾을 잃게 되고 그것이 速記를 배우는 또 배우려는 後進들에게 은연중 영향을 끼치게 되어 그 反作用으로 女性의 進出이 현저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 6. 結 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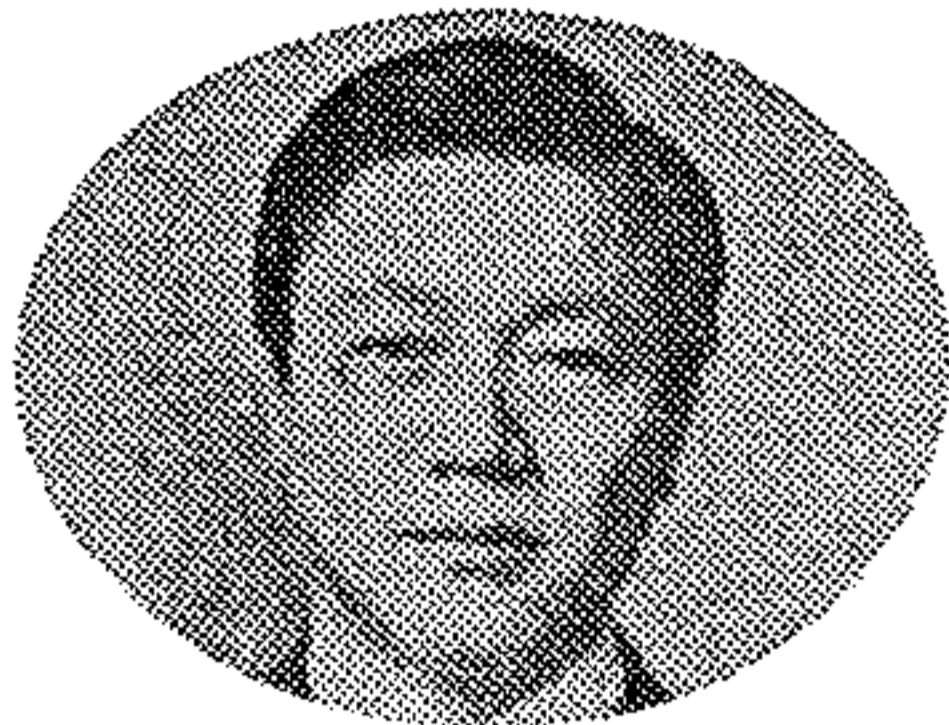
이 세상에 自己職業에 滿足하는 사람이 없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따라서 速記士라고 해서 그 思考의 「카테고리」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결코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 韓國的 特殊現實이라 하지만 技術職은 아직도 여기저기서 疎外當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며 그로 인해서 自己職業에 대해 심한 卑下의 현상까지도 빚어내고 있는게 현실이다. 다행히 政府當局에서도 그런데 눈을 돌려 새로운 號俸制를 實施해 長期勤續 下位者가 俸給面에서나마 上位者를 능가하는 대우를 받게되어 다행이며 他職種에로의 交流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關聯職種인 編輯業務로의 轉換이 可能하도록 努力한 결과 이미 6名の 速記士가 編輯業務를 담당하고 있다.

女性速記士의 進出을 막을 생각은 없으나 이런 現象이 男性들의 速記士라는 職業에 대한 價値觀의 어떤 卑下현상에서 나오는 結果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國會 速記第5係長)

# 第11回 速記講習

申 世 華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에서는 學生 및 一般大衆에게 速記術을 普及시켜 速記文化의 發

展과 速記에 대한 一般 社會의 認識을 새롭게 하고 스피드時代의 筆記生活에 利用할 수 있게 하는 一人一技의 기틀을 마련해 주고자 해마다 冬季와 夏季의 學生放學期間에 速記의 短期講習을 開催하여 오고 있다.

그리하여 今年 夏季 講習으로서 11번째 인바 지난 8月 28日에 成果있게 講習을 마쳤다.

이번 講習의 現況과 結果를 보면 다음과 같다.

接受期間 1972. 8. 2~8. 7  
 講習期間 1972. 8. 8~8. 28(3週間)  
 講習法式 國語速記 東邦法式  
 英語速記 gregg 法式  
 受講人員 國語 324名中 修了 207名  
 英語 80名中 修了 43名

### ※ 참고

1971年度 冬季 國어 812名  
 영어 245名  
 夏季 國어 415名  
 영어 102名

이번 講習에 있어서 例年과 差異가 있는 것은 受講人員과 修了人員이 不足했다는 點이다. 受講人員의 豫定은 國語速記에

420名, 英語速記에 130名이었으나 그에 未達된 것이다. 이것은 今年 夏季에는 會員의 多數가 勤務하는 國會에서 會期가 계속중에 있었음으로 講習期日을 學生들의 放學初期에 갖지 못하고 後半期에 開講期日을 갖게 되는데에 理由가 있고 또한 해마다 겨증하는 「바캉스 붐」으로 인하여 바다로 山으로 많은 人員이 갔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今年 여름에 數10年만에 처음인 극심한 水害로 인하여 受講生이 中途에 講習을 中斷하지 않으면 안될 理由로 修了生이 줄어들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 修了生들에게는 끝까지 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講習을 마쳐준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다음은 이번 講習을 마치고 修了者들에 대한 設問을 分析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設問內容을 分析해 보면 速記講習을 받게된 動機에 있어서 「速記를 알기 위해서」가 단연 많은 點이다. 本來 本協會에서도 短期講習을 通하여 專門的인 速記士를 輩出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速記가 무엇인가를 一般 大衆에게 普及시키고 하나의 기틀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데 그 主眼點이 있는만큼 設問결과와 같이 기대에 맞는 結果라고 본다.

또한 講習期間에 있어서 「期間이 짧다」가 50% 以上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協會에서도 해마다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本來 速記라는 것은 많은 時間을 要하는 學



設 問 內 容	國 語 (%)	英 語 (%)
速記講習을 받게된 動機	{ 速記를 알기 위해서 78.6 노트筆記의 도움을 위해서 21.4	90.6 9.4
3週間の 期間을 어떻게 보십니까?	{ 길다 2.9 짧다 54.8 適當하다 42.3	3.2 59.3 37.5
速記를 배워보니 어떻습니까?	{ 어렵다 17.3 쉽다 3.8 할만하다 78.9	12.5 21.9 65.6
지금까지 배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 도움이 되겠다 79.8 도움이 안되겠다 7.7 잘 모르겠다. 12.5	84.4 6.2 9.4
速記講習開催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 新聞廣告 71.6 新聞文化欄 4.9 라디오公知 0.9 친구를 통해서 22.6	98.8 9.4 — 21.8

術인 것이나 季節과 協會의 事情으로써 긴 期間을 할애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速記를 배워보니 어떻습니까?」에 「할만하다」가 70% 이상인데 勿論 할만한 것이기에 速記習得者가 있겠지만 좀 더 專門的인 速記士가 될 때까지 受講을 해보면 이 設問結果와는 좀 달리 나오지 않을까 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에 「도움이 되겠다」에 80%가 된다. 남이 알지 못하는 速記術에 의해 筆記 電話메모, 日記메모 등에 有效하게 利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 講習을 主催한 協會로서 滿足하게 여기는 바이다.

其他 協會에 要望事項을 보면 우선 講師陣의 熱誠에 感謝한다고하고 몇가지를 소개해보면 「우선 協會에 감사드리고 싶다. 무료공개강좌라고 해서 무성의 할 줄 알았던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친절히 교

수해 주셨다. 틈틈이 이런 기회를 베풀어 주셨으면 함」이런 內容의 應答도 있었다. 또한 TV 방송 講座를 要望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것은 協會로서 대단히 所望스러운 것으로서 研究 檢討하여 實施하도록 努力해야 될 事業이 아닌가 여겨진다.

要望事項을 간추려 보면 ① 長期無料講習要望 ② 깨끗한 環境 ③ 積極的인 廣告 ④ 記錄映畫로 速記士의 活動을 소개하여 效果를 거둘것 ⑤ 1個月 1回 無料講習 ⑥ 缺講은 補講要望 等이다.

앞으로 協會로서 모든 問題點을 검토하여 시정해 나가야 할 點도 많은 것으로 본다.

以上 今番 講習을 마치고 그 現況과 結果를 記述하였는바 今後 보다 發展的이고 有效한 講習이 되도록 研究하여 本協會의 目的한바 대로 이루어지도록 보다 集中的으로 努力할 決心이다. (事業部長)

덜 쓰고도 다 읽어야

<縮字와 略字의 體系化 문제>

姜 駿 遠

(2)

축자와 약자의 분화(分化)

흔히 축략법(縮略法)이니 약기(略記)니 간자(簡字)니 하던 표현과 개념은 이제 과학적으로 분화되어 △축자법과 △약자법으로 뚜렷이 나누어진 것 같다.

①문자	②발음표기	③통용성	④표음·표의 축자법
일부생략	생략없음	있음	소리·뜻
축자법			
일부생략	일부생략	없음	뜻·소리

위의 표가 참고될 것인데 ① 글씨를 덜 쓰고도 다 읽도록 한 점은 「축」「략」이 다 같고 ② 발음 표기에서는 「축」은 생략이 없음이 원칙, 「략」은 일부 생략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③ 통용성(通用性)에서 본다면 가령 「지구」라는 연발음어(連發音語)를 필동(筆動)은 줄어져도 발음이 「지구」이면 地球도 地區도 되는 낱말인데 반하여 「략」은 가령 「재」의 특대선(特大線)을 「현재」라고 읽기로만 특정(特定)하여 놓으면 다른 말로는 읽어서는 아니되므로 통용성이 없는 법이다. ④ 다음 표음과 표의의 어느쪽이 위주(爲主)인 생획(省劃) 조치

이나를 볼 때 「축」은 표음으로 소리쪽에 충실을 기하고 「략」은 소리는 약자됨의 부수적(附隨的)인 소재(素材)이고 그 기본문자와는 판이(判異)한 어느 선이란 모양이 약자임을 뜻하는 반(半)표의 문자 구실을 하는 것이다.

축자법의 개발

이제 각국 속기법 개발의 역점(力點)은 약자보다도 축자법에 두고 있음이 사실이다. 축자법은 합리성이 더 많고, 소재가 표음 분야에서나 어법 분야에서나 매우 다양(多樣)하고, 더우기 말소리를 들으면서 축자어형을 구성(構成)해 나갈 수가 있는 이점(利點)에서 언제 한번 쓸는지도 모르는 약자를 약자첩(帖)을 들고 다니면서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축자법이 발달하면 무약자(無略字) 시대가 올 날도 그리 멀지는 않을 것 같다.

표음분야

△ 다음절어(多音節語)의 단형화(單形化)  
우리말은 2음절어가 절대 다수로서 이 가운데서 빈출어(頻出語)인 부사나 명사 따위는 각 범식마다 처리되어 있고 희출어(稀出語)는 당연히 문자대로 써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3~4음절어는 잦게 나오지



는 않는다 하더라도 속기의 제법(制法)상 한 어형을 3~4획으로 쓴다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자음·모음·받침 그 어느것의 하나 둘을 줄이기는 하지만 발음은 언제든지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축자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품사별로 축자 조치가 요구되는 3~4음절어를 적어 본다. 우선 모음「이」를 아니 쓰므로 축자되는 말들을 들 수 있다.  
 △명사=이야기 엉터리 주머니 아주머니  
 줄거리 바가지 호기심 끝머리 큰소리 잔소리  
 소용돌이 수수께끼 게으름 허수아비 어저께 그저께  
 △동사·형용사=어리석은 아리송한 부드럽게 부르짖고 부끄럽다 조그마한 서투르다  
 쳐부수다 가다듬는다 무찌르고 타이른다 주무르니까  
 △부사·접속사=더더군다나 슬며시 슬그머니 뚜렷이  
 △접미어=피투성이 싸움꾸러기 넘어뜨리는  
 가느다랗게 터무니없는  
 △특정 2음빈출어=여기 저기 거기 더욱  
 머리 의무 의미 사무 누구 느끼고

### 받침의 안쓰고 읽기

대저 우리말 받침을 속기로 쓰는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 소재로서 ① 5~6개 방향을 가진 극소선(極小線)이나 ② 대소의 원이나 갈퀴따위 부호들을 가첨(加添)하는 방법에 있어 ③ 발음 차례대로 하는 순기(順記) 법과 ④ 기왕 한 음절문자인 바에서 앞에 먼저 붙일 수도 있다는 역기(逆記) 방식이다. 「강」을 가+ㅇ으로 쓰면 순기, ㅇ+가로 쓰면 역기인데 영어의 the 는 뒤에 apple 하면 「디」 pencil 하면 「더」로 읽어야 하는 뒷말을 살피 앞말을

나누어 읽어야 하는 역독(逆讀)도 있는 세상이니 순기·역기 모두 쓰고도 남을 방법이요 두가지를 혼용(混用)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축자법에서 더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역기법식에서이다. 우리말은 받침이 있고 없는 비율은 반·반인데 이 잦은 받침을 일일이 머리에 붙이다가는 그 두부(頭符) 하나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지만 소요(所要) 분초(分秒)는 한 개 문자선(線)과 맞먹으므로 속서(速書)가 안되고 무리하게 후려갈기면 본(本)문자까지 망치는 예가 허다하다. 미국의 보편적인 Gregg 식의 가장 두드러진 결함도 이것인데 이 식은 원·구(圓鉤)가 순기의 모음 기록 방식이지만 초출(初出) 모음 약 3분의 1의 두부(頭符)가 미해결 상태로 거의 100여 년간 골치를 썩이고 있다.

물론 우리말 속기법들도 이 초출두부문제는 여전하다. 그렇다고 받침이나 모음의 일부를 미부(尾符)로 한 법식은 이 초출두부문제는 없지만 그 대신 더 큰 난제(難題)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곧 주사(主詞=명사·동사·형용사·부사·접속사 따위)에 붙는 조사(助辭=조사 어미 보조어간 보조동·형사 형식명사 따위)를 일일이 기본문자로 써야 하는 필요악(必要惡)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역기법은 잦고 또 속히 발음되는 조사 는/은 가/이 에/의(속기에서는 같이 써도 좋다) 로/으로 를/을 와/과 도/어도 서/어서 며/으며 면/으면 야/어야...등을 첨가어(添加語)의 조사답게 위치로서는 미부(尾符), 효과로는 표의부(表意符)로서 속서(速書)와 속독(速讀) 정독(正讀)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우리말의 예도+불

구하고 ㄹ수+있다·없다, 줄+안다·모른다 따위까지 조사로 본다면 그 수효가 600을 헤아리는데 몇몇 단음(單音) 조사만으로 그 모두를 매기단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도 되겠지만 기본문자와는 그 길이가 다른 15개 극소선(極小線)을 가령 가게고오기 내려느니 자다든지...등 어미(語尾)와 어울리면서 복음(複音) 조사로 만들고 처럼 때문 커녕 에+관하여 에+대한 로+말미암아 는+고사 하고...등 특수하게 주사와는 다른 형태로 꾸미면 속서정독(正讀)·속독이 이루어지는 인류 미

래의 문자의 조건을 갖추어 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모음을 원·구 따위로 한 속기법에서는 미부(尾符)를 조사로 삼을 수는 없지만 극소선 15개쯤은 연서(連書)가 가능하니 그 발음과 뜻의 비슷함을 따라 30~40개 빈출 조사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두부(頭符)의 형상(形像)은 없애지만 발음은 또렷이 읽을 수 있는 무서이독(無書而讀)의 축자법에 언급하겠다.

(本協會 指導委員)

## 用 語 解 說 (第 4 回)

**EAROPH** 東南亞地域計劃 및 住宅機構 이것은 IFHP(國際住宅計劃聯合)의 東南亞地域支部로서 1958년에 創立된 순수민간 研究機構이다.

이 機構는 UN의 UNESCO, WHO, UIA(國際建築家協會)IULA(國際自治體聯合)등과 協力 유대를 맺고 있으며 회전국은 15個國으로 每 3年마다 總會를 열어 國土計劃 및 住宅문제등을 다룬다. 따라서 大小 도시의 재개발, 適當한 人口分散 住宅改良 都市 및 地域計劃, 國土計劃등의 理論과 實제를 研究하여 自國의 정부에 建議하기도 한다.

**OAU**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의 약어, 63年 5月 22日 「이디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아프리카」 수뇌회의에서 30個 「아프리카」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이 OAU현장을 채택함으로써 같은해 10월에 발족, 이번 「뮌헨」 「올림픽」에 대한 「로디지아」 참가문제 말쟁에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 「로디지아」참가를 봉쇄시키는데 기여했다.

**Móra-tóri-um**——지불정지(연기), 지불유예령

**賂取現狀**——銀行으로 부터 預金 引出이 물리는 現狀.

**彈力關稅制度**——關稅率의 引上 引下등 일정 한도 안에서의 關稅賦課權限을 정부가 管轄,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등 경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 취해지는 것으로 租稅法律主義의 例外規定으로 認定된 制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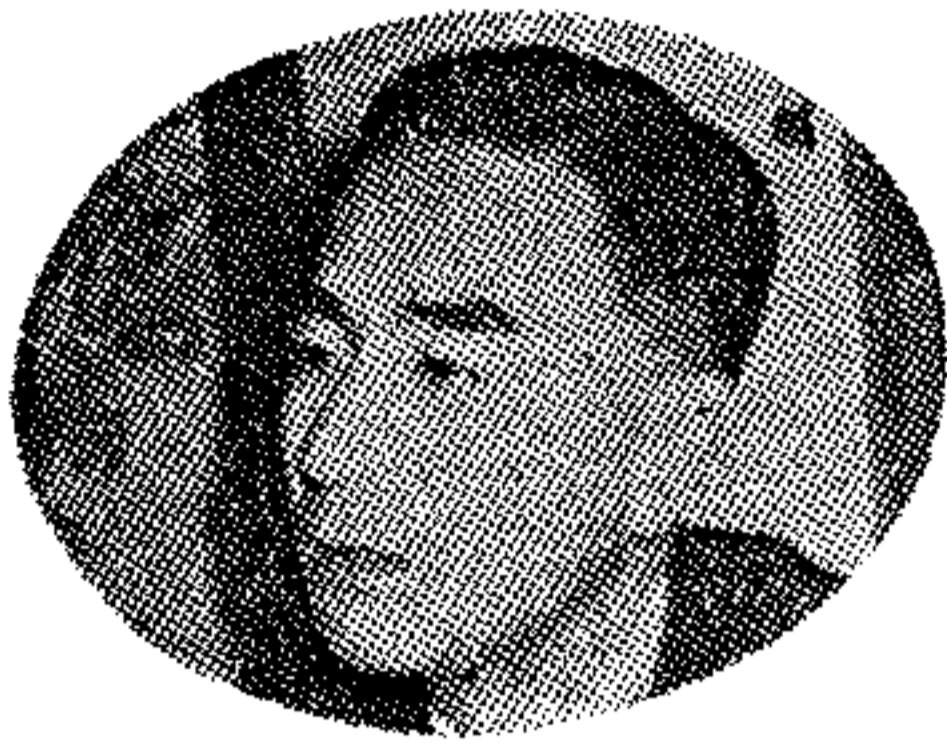
**Jamboree**——「보이스카우트가 청소년들의 품성향상과 체력증진을 위해 마련하는 野營大會, 원래는 「즐거운놀이」 「유쾌한 잔치」라는 뜻을 지닌 北美 「인디안」의 말인데 1970년부터 「보이스카우트」의 공식용어로 채택되었다.



# 장님 코끼리 다리 더듬다

—東南亞旅行記 中에서—

李 東 一



남 보기에  
뭐 대단한 人物  
이 出國하는 양  
동료들이 총동  
원된 盛大한 歡  
送을 받으며 머

리에 털나고 처음인 外國旅行길에 오르게 되었다.

모두가 느끼는 경험이었으나 막상 떠나는 순간에 이르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설레이던 감정은 간곳없고 이제부터 寫眞에서만 보고 말로만 들어오던 山설고 물설고 낮선 고장에서 맞부닥치게 될 온갖 것에 대비한 긴장감에 차라리 될대로 되라는 심정에 오히려 안정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전부터 忠淸道양반(느림보)임을 자랑하던 A兄은 「스타트·라인」에서부터 평소에 쌓아온 실력을 과시하여 비행기탑승의 「어나운스먼트」가 여러번 나오고 난 후에야 手續을 마치고 점잖은 모습으로 나타나 성미급한 L兄의 속을 무던히도 태웠다.

14시 25분 거대한 보잉 707은 太極標識도 선명한 銀빛날개를 흔들며 轟음을 뱉하고 드디어 離陸하였다.

自國飛行機를 타고 꿈에 그리던 外國나

들이를 떠나는 感懷!

機長은 勿論이고 승무원도 우리나라 사람이요 機內 「어나운스먼트」도 韓國 美國 日本 中國語 順으로 나오고……

自主獨立國民의 긍지와 감격을 세삼 맛보았다.

愛國者가 된 氣分과 國際的 人物이 된 氣分 사이를 오가는 동안에 一行을 태운 機體는 어느듯 西南海邊에 부딪치는 흰 물거품을 뒤로한지 1시간 30분만인 14시 40분(현지시간 : 이후 계속 현지시간임)에 부슬비나리는 臺北의 松山飛行場에 寄着하였다.

비행장 여기 저기에는 KAL TWA JAL 등 각국 비행기가 즐비해 있고 어떤 건물 지붕에는 “復興北邦”이라는 口號가 걸려 있어 本土를 잃고 臺灣에 와 있는 그들의 本土收復에 대한 意志를 읽을 수 있어 南北으로 分斷된 우리의 쓰라린 處地를 다시금 想起케 하였다.

16시 25분 臺北을 出發하여 「홍콩」에 1시간 가까이 滯留하고 어두운지 오랜 20시 35분 첫 經由地인 「방콕」에 安着하였다.

간단한 入國手續을 마치고 나오니까 KOTRA의 吳館長이 迎接次 나와 있었다

吳館長의 車로 約 40분을 달려 「방콕」 中心街에 있는 Rajah Hotel에 旅裝을 풀



었다.

機內에서의 滿腹으로 충분할줄 알았던 slow 의 A兄은 到着即時 또 먹는 타령이다.

氣溫은 32°C...

이곳은 6月에서 10月이 雨期라 비교적 덥지 않은 철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서울의 더위보다 약간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換率은 US \$ 1.00 對 20.7「바트」僑民은 약 500명정도이며 林胤英大使는 ASPAC 준비차 귀국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곳의 자동차들은 모두가 左側통행이어서 기이하게 생각했더니 東南亞 대부분의 나라가 左側통행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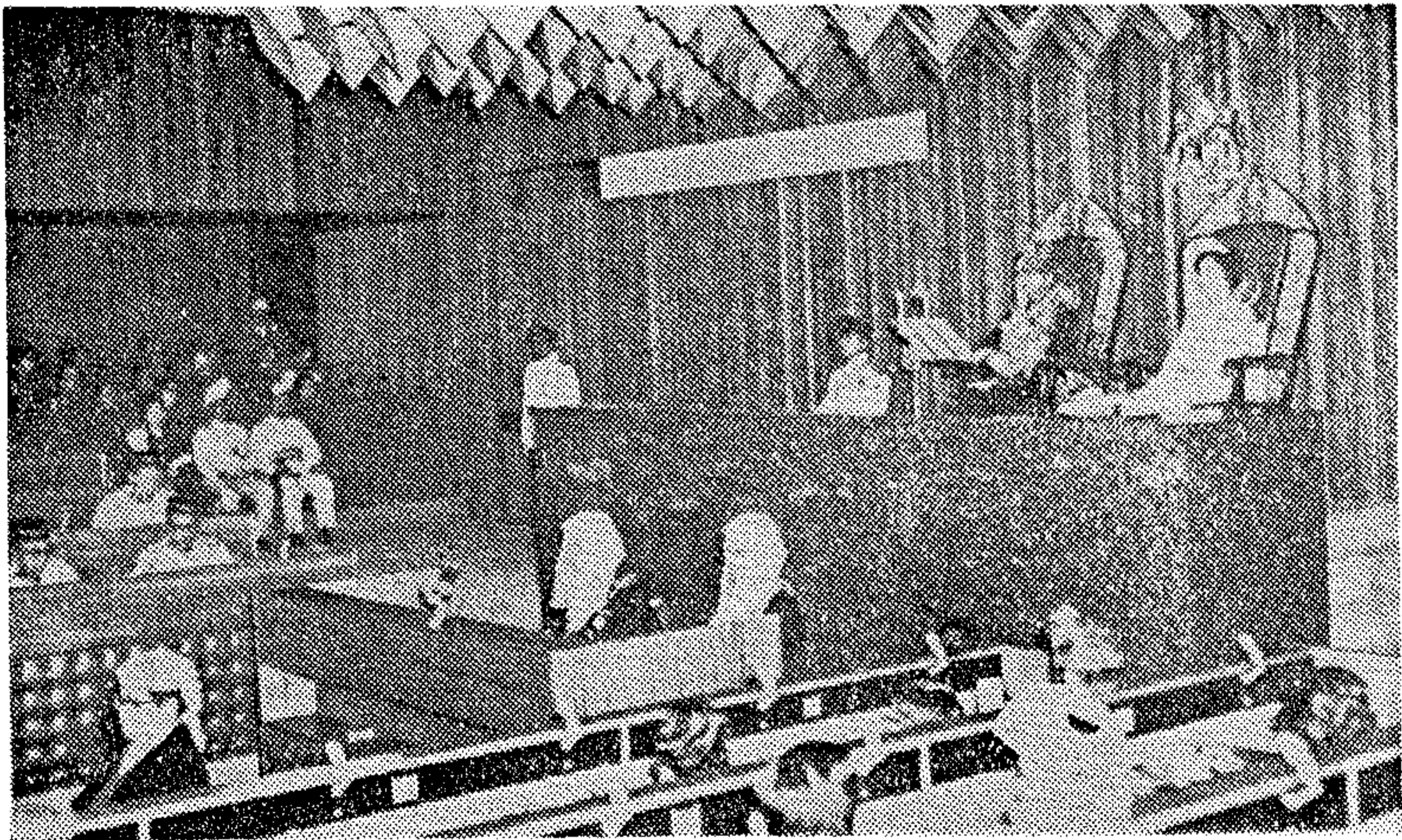
「방콕」의 첫밤을 괴상한 냄새와 형언할 수 없는 야릇한 흥분속에 설치고 아침식사는 L兄이 준비해온 D식품의 밥통조림으로 때웠는데 例의 A兄은 또다시 눈깜짝

할 사이에 2人分을 해 치우는 偉大(=胃大)함을 자랑하였다.

泰國태생의 中國系인 Mr. Dawee 의 안내로 이곳에 온 외국인이면 꼭 보아야 한다는 floating market(水上市場)을 보기로 하고 자동차를 그리로 몰았다.

이 floating market 은 海拔 2「미터」밖에 안되는 運河의 支流에 設置된 市場으로서 이곳 사람들의 모든 生必需品들이 이곳에서 거래되는데 開場시간은 아침 7시에서 11시 사이라고 한다.

우리 일행은 遊覽船인 「모터보트」를 전세내어 돌아보았는데 예전 서울의 청계천의 물보다 더러워보이는 폭이 6~7「미터」밖에 안되는 물줄기를 따라가니 舟上生活을 하는 사람들 또는 南方式 木造建物(우리나라 판자집과 진배없다)에서 生活하는 사람, 「카누」에 과일 식품들을 싣고 손님 끌기에 餘念이 없는 장사꾼 아낙네들, (주로 여자들이다) 그리고 水路 양편의 건물



말레이시아 의회 개원식 광경



에도 가게가 즐비하여 日用雜貨 식료품들을 팔고 있었다.

이곳 floating market 의 교통수단은 물론 배로써 장사꾼의 「카누」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遊覽「보트」 그리고 住民의 발이되는 漕艇과 같은 배에다 「모타」를 단 배등이 전부다.

이곳 사람들의 집마당 곳곳에 흡사 우리나라의 김장독처럼 생긴 것이 많이 놓여있어 무엇인가 물어보니 이네들의 생명줄인 물독으로써 비가 올때 여기에다 빗물을 받아서 그것으로 食水를 한다는 것이었다.

兩편 어디 할것없이 조금만 눈을 들면 「바나나」 「빠빠야」 「과인애플」 등 南方 특유의 울창한 숲이 짝 들어차 장관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floating market 을 2시간여를 돌고 다시 市內로 들어와서 5색이 영롱하고 지난날의 榮華를 그대로 말해주는 듯한 泰國의 舊王宮을 돌아본 후 누워있는 佛像 그리고

지금은 解散되어 빈 建物이며 接近이 禁止되어 있는 議事堂과 現王宮을 外廓으로 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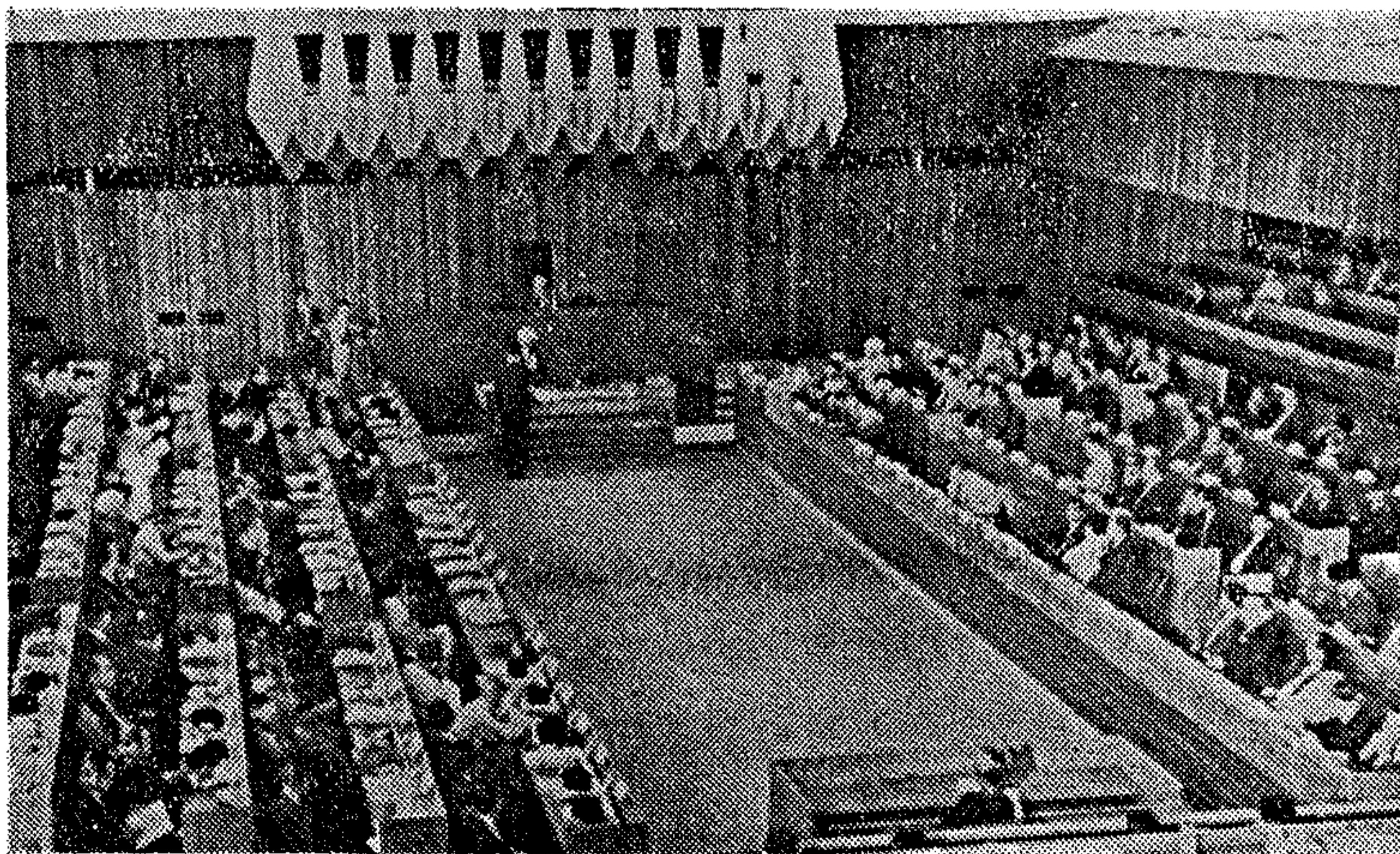
어디를 오가나 觀光地에서는 바가지 料금이 鐵則인양 2弗하는 「칼라필립」을 3弗을 받고 있었다.

점심은 韓國人經營의 Koreana(高麗亭)에서 먹었는데 「방콕」市內에 韓國食堂이 여섯군데 있다는 말을 들었다.

점심을 마친후 역시 Mr·Dawee 의 안내로 「라오스」로 뺄는 高速道路를 따라 「방콕」에서 4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또 하나의 名所인 Rose Garden 에 갔다.

얼마나될지 헤아릴 수 없는 광활한 대지 위에 각종 열대식물에 둘러싸여있는 이곳에 들어서니 흡사 어린시절에 읽은 童話에 나오는 宮殿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다.

하도 아름답고 잘 가꾸어져 있어 國立公園이나 國營觀光地냐고 물었더니 이곳은 泰國財閥中 「랭킹」 10位인 어느 人士



말레이시아 하원 본회의 광경 (오른쪽 밑에 머리만 보이는 것이 4명의 속기사 이다)



의 個人 所有로서 순전히 觀光客 유치를 목적으로 꾸며진 것이라 한다.

Rose Garden 안에 設置된 Thai Villiage의 民俗놀이는 3시에 시작되었다.

이 民俗館 안에는 Thai 固有의 풍습 즉 절구질, 자기굽기, 모자만드는 광경, 「실크」짜기, 음식 등을 실지로 再現시키고 있고 歷代王朝의 衣裳展示를 하고 있었다.

民俗놀이로는 손톱춤, 「킵·복싱」 Thai 고전무용, 鬪鷄, 칼싸움, 竹舞, 結婚儀式, 鬪牛, 코끼리가 「티크」木을 運搬하는 모습 등을 볼 수 있었다.

計劃은 歸路에 毒蛇研究所를 돌아보려 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포기하였다.

「호텔」에 돌아오니 大使館 張書記官이 기다리고 있었다.

순전히 개인 자격으로서의 張書記官의 초대로 역시 韓國人經營의 New Korea 라는 곳에서 저녁을 같이하고 「터키·바스」로 有名한 La Costa 에서 노곤한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었다.

이튿날 大使館 張書記官의 餞送을 받으며 MSA 편으로 Penang 을 거쳐 「싱가포르」에 到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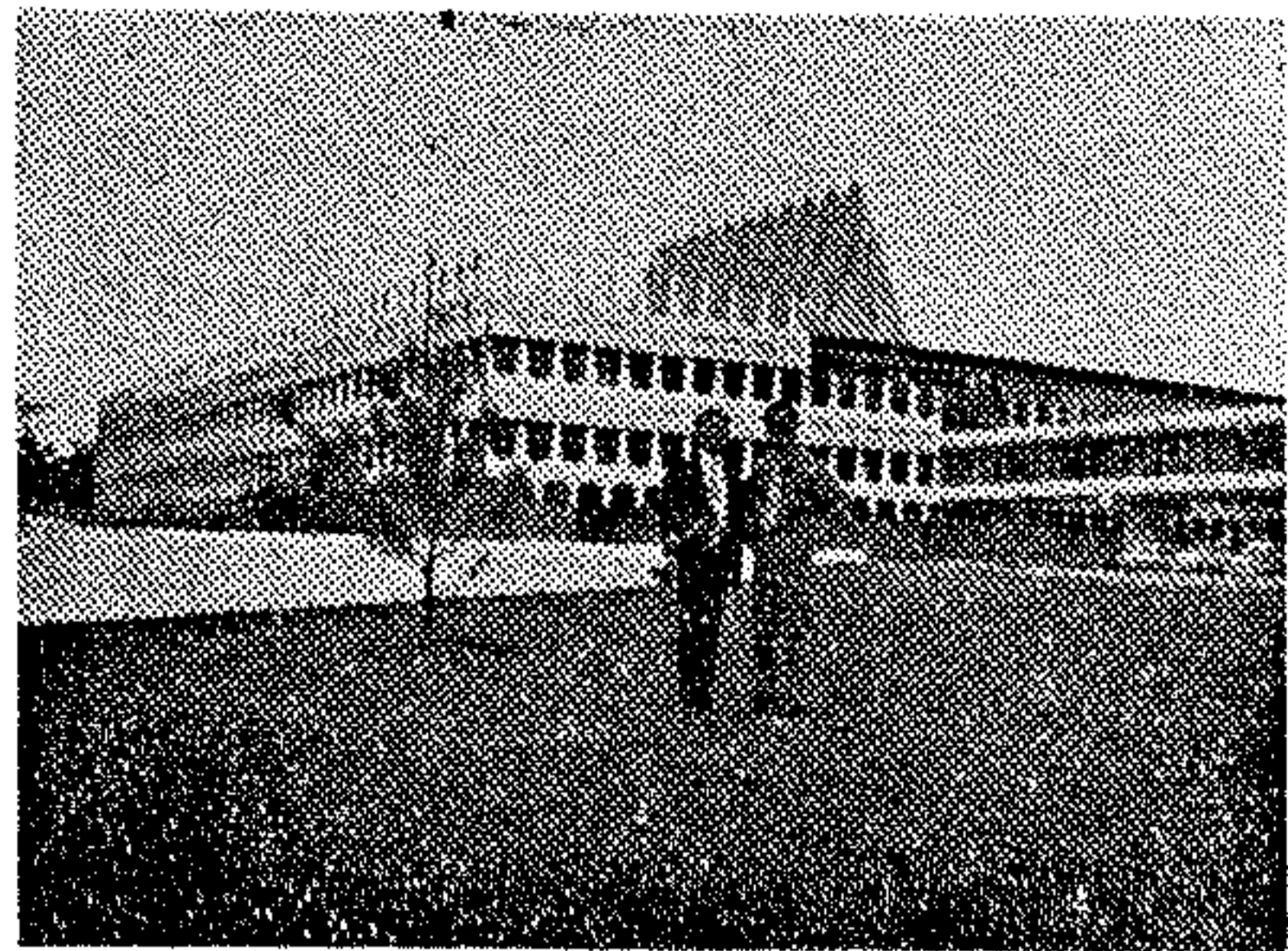
總領事館의 金副領事가 出迎을 나와 있었다. 비가 몹시 내리고 있었다.

金副領事の 안내로 Hotel Mirama 에 旅裝을 풀고 비가 그친 後에 夜景을 잠시 돌아 보았다.

이튿날 아침 總領事館에 가서 咸總領事에게 人事를 한 후 거리를 돌았다.

어디에서나 느끼는 심정이지만 땅이 넓고 열대지방이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모두 깨끗하고 公園을 돌아보는 기분이 든다.

14시 15분 「싱가포르」를 출발하여 15시에 목적지인 「말레이시아」의 首都 Kuala



말레이시아 의사당 앞에서

Lumpur 공항에 도착하였다.

大使館의 李書記官의 영접을 받으며 곧바로 豫約된 Hotel Fortuna 에 여장을 풀었다.

7년전만해도 「말레이시아」 聯邦에 있었던 때문인지 이곳의 貨幣는 「싱가포르」의 貨幣도 쓰여지고 있었는데 換率은 美貨 1 弗 對 2.7弗(말레이시아弗)이었다.

李書記官으로부터 9시 30분에 「말레이시아」 議會를 시찰하게 約束이 되어 있다는 연락이 있어 아침 일찍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李書記官의 안내를 받으며 9시 30분 정각 「말레이시아」 議會에 도착하여 J. K. Lim 事務總長署理를 비롯한 關係官들의 영접을 받았다.

우리가 준비해 간 꽃병 등 선물을 전달하고 議會의 일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議事堂을 둘러보았다.

40「에이커」의 넓은 대지위에 本館 3층 의원회관 18층의 현대식의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記錄部(Official Reports Divission)에서 速記業務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곳에서는 上下兩院의 業務를 모두 담당하고 있었는데 實務速記士가 14명이며



이중 3명은 女子速記士였다.

業務過程은 大同小異하나 翻文을 打字로 하고있어 能率的이었으나 印刷施設 때문인지 會議錄(完成된)은 會議後 50일 이상 걸린다는데에 놀랐다.

速記士들만의 協會 등 團體構成은 없으며 全體 速記人口는 約 3,000명 정도이고 速記法式으로는 Sloan-Duployan 式 Pitman 式 Gregg 式 그리고 「아랍」語를 응용한 「말레이」—英語 共用的 Rumi 式 등이 있다고 한다.

公用語가 「말레이」語와 英語이므로 速記도 議員이 發言한 用語로 速記되고 會議錄에도 議員이 發言한 用語대로 記載된다.

특히 J.K. Lim 事務總長署理는 자기도 速記士出身이라고 하면서 더욱 반가워하였고 筆者가 우리 大韓速記協會와 「말레이시아」 速記界와 긴밀한 유대가 맺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자기가 기꺼히 그 架橋役割을 맡겠다고 선선히 응하였다.

議會視察을 마친후 大使館에 金星鋪大使를 訪問하고 人事를 드렸다.

過去 7代때의 國會議員으로 계셨을때를 회상하시면서 친정식구라 더욱 반갑다고 다정하게 맞아주셨다.

점심식사를 영똥하게 잘못들어 食代로

15弗을 뺏기는 受難을 겪었으나 덕분에 대낮에 식사를 하며 「스트립·쇼」를 즐겼다  
體育館 王宮 國立博物館 國立回教寺院 Malaya 大學校 등을 돌아보았다.

저녁에 大使館의 초대로 즐거운 한때를 가졌다.

朴參事官以下 모든 韓國職員이 참석하여 本國의 얘기 등 밤가는 줄을 몰랐다.

이튿날 議會를 다시 방문하여 미진한 사항을 보충하고 Lime-stome-Caves(석회동굴)과 Zoo Negara(국립동물원)을 돌아보고 大使館에 들러 出發人事를 드린후 一路 歸國의 길에 올랐다.

走馬看山格이지만 종합적인 느낌은 역시 東南亞는 列強의 廣大한 市場이라는 것을 첫눈에 느낄 수 있었고 것처럼 自然의 풍요한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어찌 저 정도의 生活水準밖에 이르지 못했는가 안타까웠다.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이 저와같은 넓은 國土에 무진장한 地下資源 또 풍요한 自然의 혜택만 입고 있다면... 아니! 그것은 고사하고 어서 속히 南北統一만 이룩된다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富는 금방 능가하리라는 自信이 넘쳐흘렀다.

(國會速記第2係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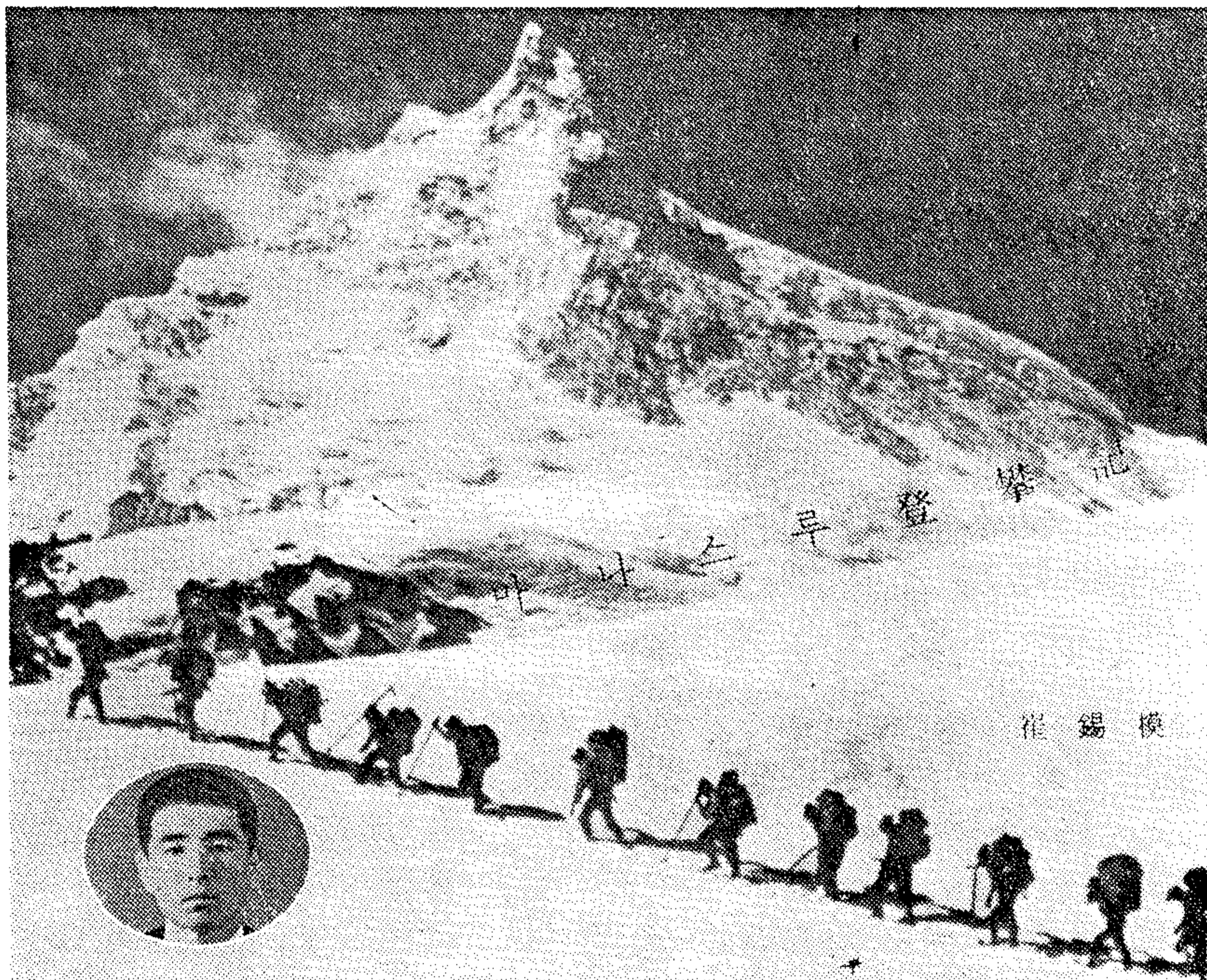
---

거기에따라 人間은 새로운 秩序世界の 核心에서 그 무엇과도 代置할 수 없는 <손>과 <頭腦>를 가지고 그 君臨이 繼續될 것이다. 이 <손>과 <頭腦>야 말로 速記의 二大要素인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要求되는 速記士의 資質은 全範圍의 人間的特質(聰明性, 敏活性, 忍耐性, 誠實性등)과 特殊한 知的形成力이 絕對的으로 要求된다.

(速記總覽 第1輯에서)





(2)

NEPAL

- 面積 : 14萬 1,000km<sup>2</sup>(14個洲)
  - 人口 : 1,100萬
  - 首都 : KATHMANDU(20萬名)
  - 政體 : 立憲君主制
  - 言語 : 파루파데아語
- 歷史, 政治 : 1769年「구루카」王朝가 成立 그후 RANA 家가 전제정치를 하여 엄중한 쇄국정책을 하여 오다가 1951年 王政으로復古하여 議院內閣制를 했었지만 1960년에는 왕이 정치의 全權을 장악하여 토지개혁, 대가족제 폐지 등의 진보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 현재는 村落會議組織

制로 「판차야트」라는 議會가 있다.

○一般事情 : 세계의 지붕 「히마라야」의 나라 東西로 가늘고 긴 형태를 하고 있고 그 北邊이 「히마라야」 산맥으로서 東으로부터 世界最高峰인 Everest 山이 있고 TIBET(中共)와 接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大國인 印度와 中共과의 사이에 끼어 있어 立場이 미묘한 中立外交를 펴나가고 있다

住民은 「구루카」, 「네와루」, 「라나」, 「다카리」族 等이며 宗教는 힌두教가 많고 文盲率 80%이다. 최근에는 국민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적인 교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직 독특한 Exotic 한 異國的인 분위기를 保持하고 있다.

○自然 : 熱帶로부터 氷雪의 極地까지를 이루고 있고 수도 「카투만두」는 1,300m



의 高原의 盆地(네팔 盆地라고함)이며 印度 국경 가까이 아열대의 평지 이외에는 칩칩 산뿐으로 그것이 험준한 「히마라야」 山이다.

○ 産業, 經濟, 交通, 여행사정 : 政府 財政의 90%가 外國으로부터의 원조(美, 印, 蘇, 中共, 日)이며 主産業은 농산물이지만 석탄, 銅, 鐵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무역은 印度가 主이다.

交通은 「칼카타」 「데리」로부터 RNCA (네팔국립항공), IAC(인도항공)로 2시간, 「뵙콕」에서는 TG(태국항공)로 約 4시간, 「다카」는 2시간 20분이 걸린다.

여행사정은 出入國時 査證이 必要하며 예방접종은 천연두, コレ라가 必要, 담배, 술은 個人用만 免稅로 許容.

外國通貨는 所持申告를 해야 하며 印度 「루피」는 지참금지이다. 통화단위는 「네팔, 루피」로 1「네팔루피」는 100「파이사」  
US 1\$ = 10.10「루피」

### 登攀準備

15日間(日記를 中心으로)

1972年 2月 14日(月) 대체로 맑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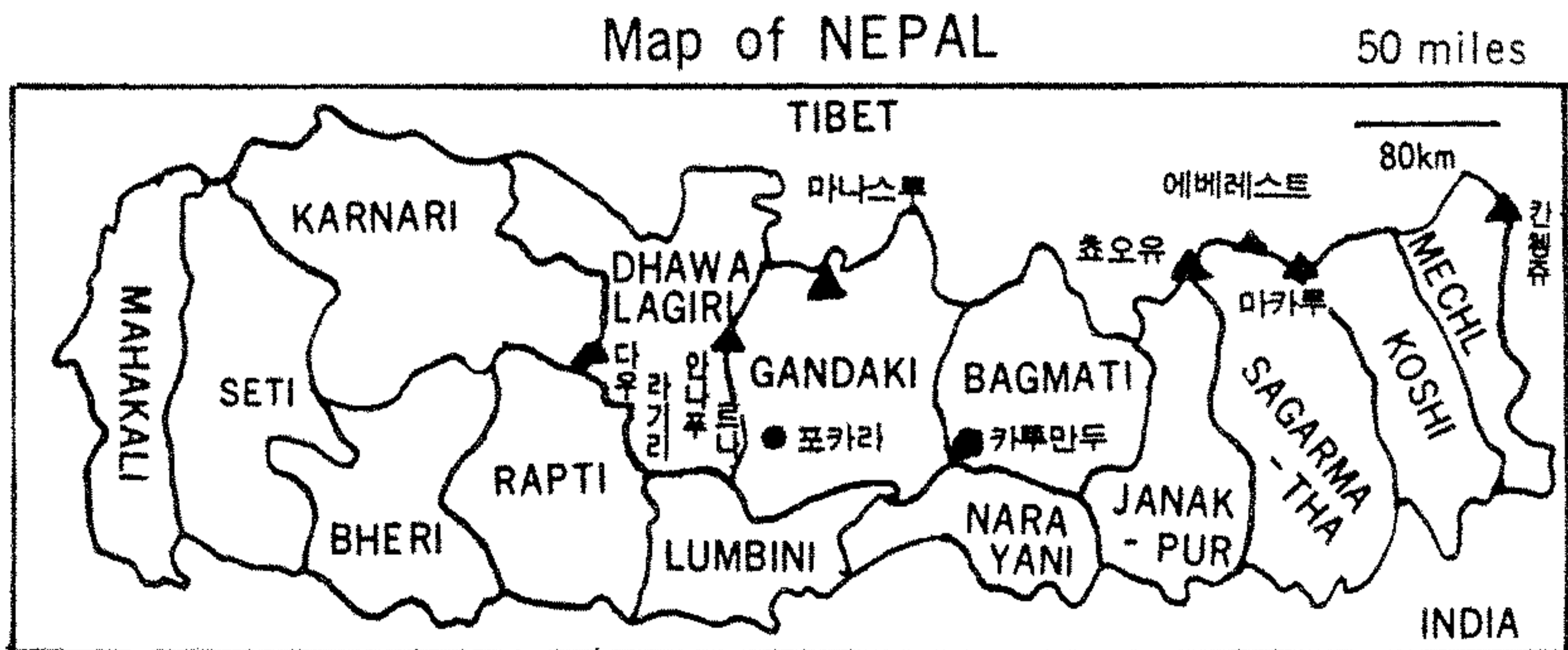
비용 절약을 위해 United Mission Head Office 옆에 있는 Thapathari Village 의 한 二層民家를 15日間 전세로 빌려 來日 이사하기로 하고 午後에는 外務省을 訪問 申請 연장신청(5個月間)을 하고 짐을 찾을 수속을 延兄과 부지런히 서둘렀으나 5時 퇴근 시간 때문에 來日로 연기하고 「마나스루호텔」 212號室에서 隊長, 徐兄과 함께자다.

2月 15日 음력설날(맑음)

百洵아!

아빠가 안계시는 설날 얼마나 서운했겠니? 아빤 오늘아침 「마나스루호텔」 방안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정원에서 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Himalayan Society에서 Mr. Sign 과 같이 공항에 가서 서울, 도오쿄로 홍콩에서 부친 한 추력분의 집을 찾느라고 15:30에야 전세집에 도착하였단다. 시골 外三寸한테 편지드렸다. 韓國을 떠나고 처음으로 光州출신 吳대원한테 첫 편지가 와서 첫 편지받은 죄(?)로 저녁에 한잔 마시고 자게 되었구나. 하기가 내가 집에 있었어도 오늘 저녁엔 술 한잔은 마셨을꺼다.

이곳 날씨는 밤에 15°C쯤 아주 지내기







따뜻한 환송 (金浦공항)  
에 종단다.

또 내일 모레 편지 줄께. 학교에 들어가면 엄마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해라. 안녕! —설날 저녁에 아빠가—

2月 16日(水) 맑음 20°C

어제 밤 作戰會議에서 식량총책임자, 통신, 섭외를 담당하게 되었다. 비록 담당은 하였다 하더라도 바쁠땐 서로 도와 주기로 하고……

아침 金대장과 함께 앞으로 100日間 우리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할 「셀파」 10명을 선발 하였다. 내팔에서 1급 가는 「셀파」들로서 그 경력들도 호화찬란하다. 앞으로 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겠는데 어찌 깨끗지 못한 몸가짐이 비위에 거슬린다.

저녁 6時 李교수택에서 金박사 댁으로 초청받아 韓食으로 오랜만에 응송한 대접을 받고 수십종의 양주를 조금 조금 마시며 노래하며 춤추며 故國 얘기로 꽃 피우다 보니 밤 11:30이 되었다. (★사족…이날 밤의 그 즐거웠던 놀이가 사고후 金박사님 가족들의 눈에 선하여 무척이나 울었다고 함)

2月 18日(金) 맑음

午前에는 마늘까기, 워낙 작은 마늘이라

1습쯤 까는데 「셀파」 3명이 세시간 넘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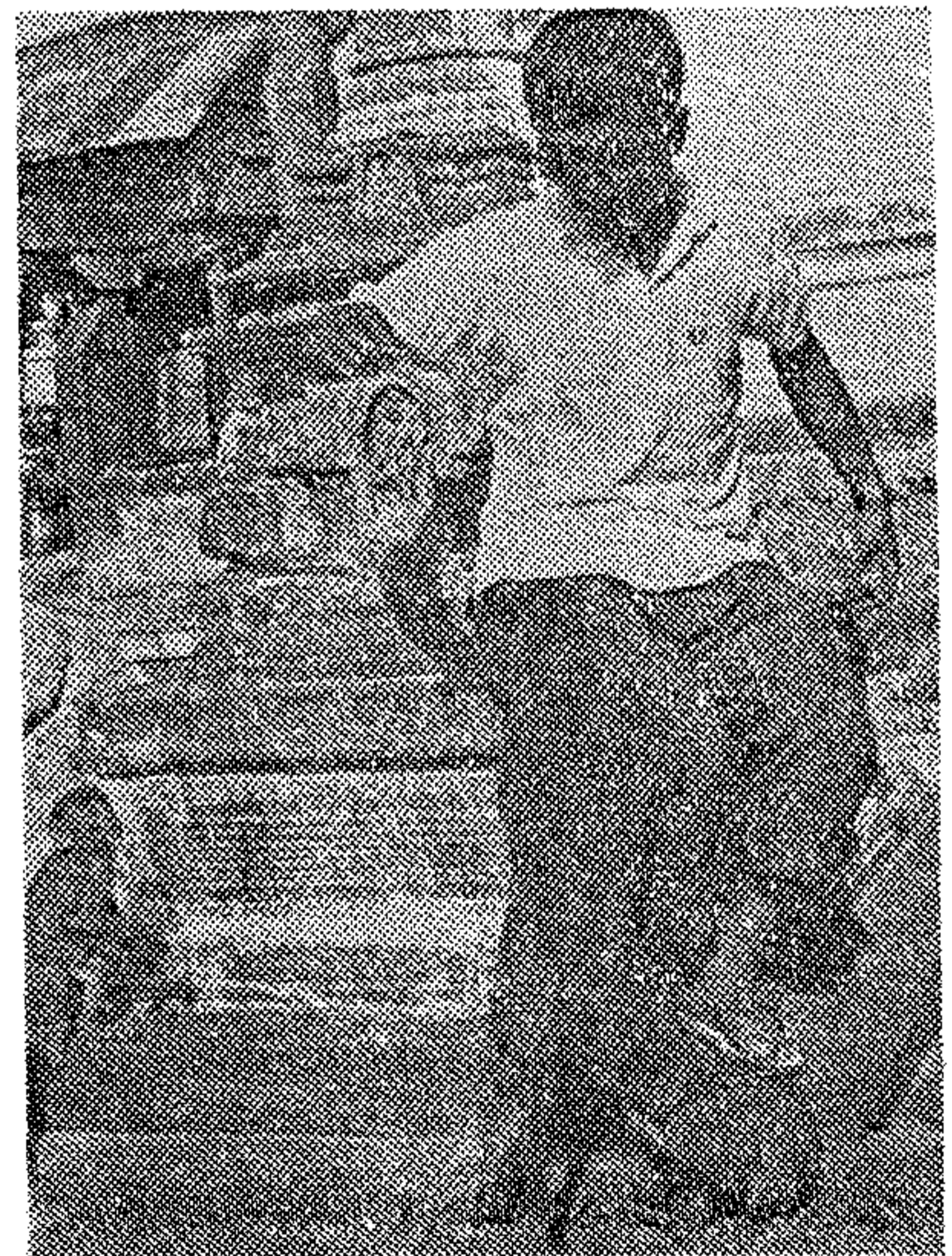
장비 자일, 텐트, 카라비너 等等(300kg)과 식량(알파米) 23개(3,600kg)포장.

오늘 날씨가 좋아서인지 동북방향에 우뚝 솟은 「가네시·히말」이 白雪을 이고 「카투만두」를 의연히 내려다 보고 있는 장관을 보겠다고 몇번인가 망원경을 끼어본다.

저녁에 李교수님 전가족이 김치, 고추장, 음료수를 갖고 來訪 처음보는 등산장비에 혀를 내두루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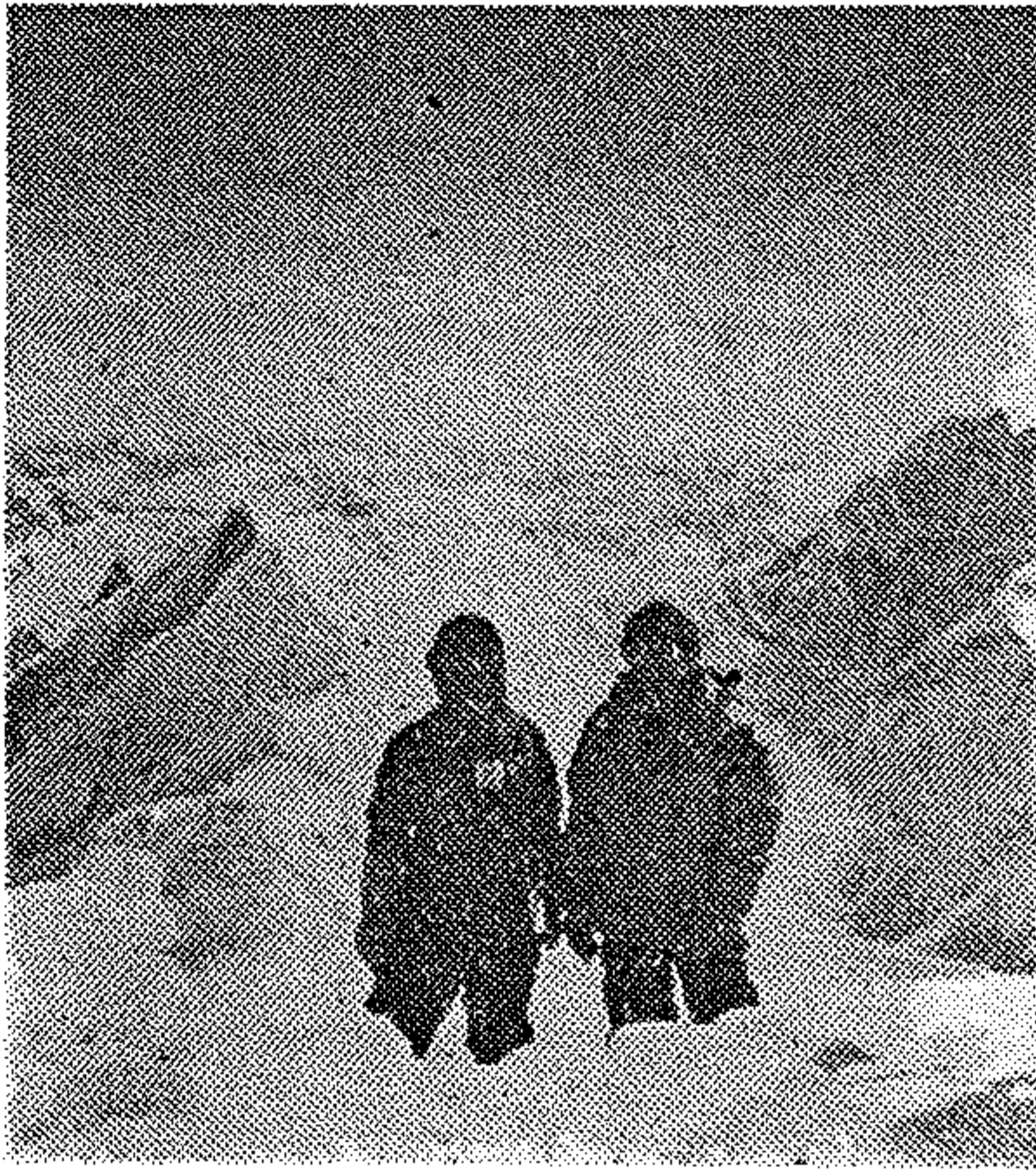
2月 19日(土) 맑음

오랜만에 벵타이를 매고 AP 기자 Mr. 「비나야·구루아차리아」의 「폭스바겐」便으로 공항에 本隊 영접 나가다. 11:15 TG편으로 총대장, 宋俊行, 金禮燮, 朴昌熙 兄 等 4명이 200kg의 짐을 들고 내리다. 그동안 사귄 공항직원들의 묵인(?)하에 트랩 밑까지 마중 나가다.



「카투만두」멍키 템플에서





Camp3 (6500m)

저녁에 「조니위커」로 本隊 환영 파티가 열려 가장 나이많은 朴兄의 재치있는 우스개에 대원 모두가 웃음바다를 이룬다.

2月 20日(日) 맑음

마늘까지 3일째인데도 아직 덜 끝났다. 새까맣던 「셀파」들의 손이 불에 붙어서 하얗게 되었는데도 워낙 마늘이 잘아서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총대장 12:00 印度를 거쳐 파리行(부족되는 C-5 以上 최신고급장비 구입차). 25日 KTM으로 돌아 온다고 함.

서울에서 부친 마지막 짐이 도착. 나의 私物 보따리를 찾아 15일만에 팬티를 갈아 입다.

저녁 New Road에 있는 大商 Mr. Bhakta Bir Singh(네팔 축구협회 회장)이 양주 두 병을 들고 訪問, 이 얘기 저 얘기 끝에 24日 축구시합 제의해 오다.

2月 22日(火) 맑음

종일토록 「카라반」 짐싸기에 고단한 몸

가누기 힘들다.

午後 柳兄으로부터 서울을 떠난 이래 첫 편지를 받고 무척 기뻐다. 첫 편지는 집사람한테서 받기를 원했는데 좀 서운한 감을 감출길 없다.

저녁 金박사 댁에서 저녁 대접 잘 받았다.

지난밤 꿈에 姬가 白色 옷을 입고 머리에 흰 리본을 달고 있는 꿈을 꾸었다. 떠날때 장모님께서 위독하셨다는데 병환이 걱정된다(주: 이때 벌써 장모님께서 돌아가신지 10일째였다)

2月 24日(木) 맑음

21日 印度로 떠났던 朴兄과 禮燮 두 대원 오전에 돌아오다. 崔大使님으로부터 유니폼 11着 기증 받아오다.

오후 3時 네팔 2位팀인 Annapurna Club과 친선 축구경기를 갖다. 4:3으로 이긴 했으나 승부보다도 「카투만두」 하늘아래 白色 유니폼 上衣에 태극기도 선명하게 더구나 韓國과는 국교도 없는 나라이며 北傀에서는 총영사관이 나와있는 실정에서 두 교포 가족의 뜨거운 응원을 받으며 이리뛰고 저리 뛰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흐뭇한 일이였다.

「게임」종료 「휘슬」이 울렸을때 두 교포 가족들의 눈 언저리는 온통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들은 오랜 해외 생활에서 오늘처럼 당당한 대한남아들의 늠름한 기개에 감탄했으며 더구나 일개 등산 원정대로서 국가대표팀과 승부를 겨루어 이겨준데 대하여 무척 감명깊었던 모양이다.

2月 26日(土) 맑음

어제 本隊로 합친 尹記者와 함께 金隊員

과 두 교포 가족은 「랜드로바」 2대에 편승 「카투만두」 동북쪽으로 달려 2시간 걸리는 해발 2,800m의 Nagalkot에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의吉日을 택해 山神祭를 올렸다. 몇쪽으로 벌려놓은 병풍마냥 쪽 펼쳐있는 大히말라야는 정말 장관 그 것이었다. 좀처럼 全景을 보기 힘들다는 이곳 原住民들의 얘기이고 보면 바람이 좀 거세게 부는 것이 흠이었지만 우리 一行은 역시 행운아들이었나보다. 멀리 건너다 보이는 「마친드레히말」, 「저누히말」, 「사갈마타」, 그 사이에 삼각형의 윗변만 조그맣게 보이는 「에베레스트」, 「마렘바르바티」, 「가네시히말」 등 「히말라야」의 준봉들의 그 위용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우리의 목표인 「마나스루」는 보이지 않는다.

祭酒는 「꼬냑」과 「캔」맥주, 떡은 金박사 모친이 화분 밑에 구멍을 뚫어 시루를 대신 한 시루떡과 꿀, 바나나, 햄 등을 앞에 놓고 우리 모두 엄숙하게 머리숙였다. 「이번 등반이 꼭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마음 속으로 빌 뿐이다.

山神祭 끝날 무렵 총대장이 불란서에서 돌아와서 그 무드는 절정을 이루었다.

대충 짐 정리는 모두 끝났고 來日 日人 「야스히사」가 온다고 하며 具隊員만 除外하고 全隊員이 모이면 그동안 지루하고 단조로웠던 모든 준비가 끝나고 28日 大望의 11日間の 「카라반」이 始作될 것을 생각하니 어떤 흥분감이 스며들어 얼른 양주 한 잔을 들이키고 잠자리를 재촉한다.

〈다음호에 계속〉

(國會 速記第 4 係長)

## 山

## 徐 吉 泉

아득한  
또, 아득한 거기  
山이 있고, 하늘이 있고  
달과 해가 있고, 전설이 있다.  
수천년의 이력을 씹으면서  
속세와 인연을 달리한  
山이 있다.  
천년의 美가 부러워  
거친 숨결을 안고  
장승처럼 우뚝 솟은  
귀먹은 돌을, 山이라 했다

365日.  
또, 365日  
연속의 회오리는  
그칠줄 모르는데  
뭇 시선을 외면한채  
장승이 목탁소리에  
넋을 잃은  
네가 부럽구나  
山은  
또 말이 없이  
천년을 살고 말이 없는데. ....

(國會速記課·國會山岳會技術部長)



# 速記士를 위한 健康教室

梁 源 龍

## 머릿말

速記業務는 반드시 〈正確·迅速〉을 前提로 하는 눈(眼), 귀(耳), 손(手)의 肉體勞動에 廣範하고 高度의 頭腦活動을 要求하는 精神勞動을 隨伴하는 五管機能 總動員職이다. 때문에 이 獨特한 職業에 오랫동안 從事할 경우 通稱 〈職業病〉이라는 게 發生할 憂慮가 있다.

一生에 있어서 가장 暗記力과 熟達度가 強한 20歲 前後에 익혀야 되는 速記術이기 때문에 또한 一生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成長期에 健康을 害치는 比率이 높다. 精密 正確을 生命으로 하는 탓으로 速力을 올리는 過程에서는 肉體的인 흥분상태를 막기 위해 強한 運動을 意識적으로 避해야 하는 不條理에 있다. 또한 速記士란 職業은 萬物博士와 같은 廣範圍한 知識을 要求하기 때문에 이의 基礎工事を 위해서는 피나는 努力이 뒤따라야 되며 資格있는 速記士가 된 후에도 이 努力은 한時도 罷놓을 수 없는 것으로 그 濃度가 他職에 비해 強하다.

한편 〈速記한다는 것〉 그 自體는 아무리 老練한 速記士일 지라도 주어진 與件 即 發言者의 特性, 發言의 專門性, 發言場所의 雰圍氣 등등이 實務에 크게 作用하기 때문에 速記士에게 加해지는 心理的 Stress 現象은 不安, 焦

燥, 히스테리, 精神病 등등 많은 문젯점을 提起하고 있다.

여기에서 一般的으로 云謂되는 速記士의 第2性格 〈날카로움〉이 탄생되며 다음과 같은 職業病을 誘發할 可能性이 甚다.

첫째, 腦神經 操作이 極甚한 경우 「精神病」의 危險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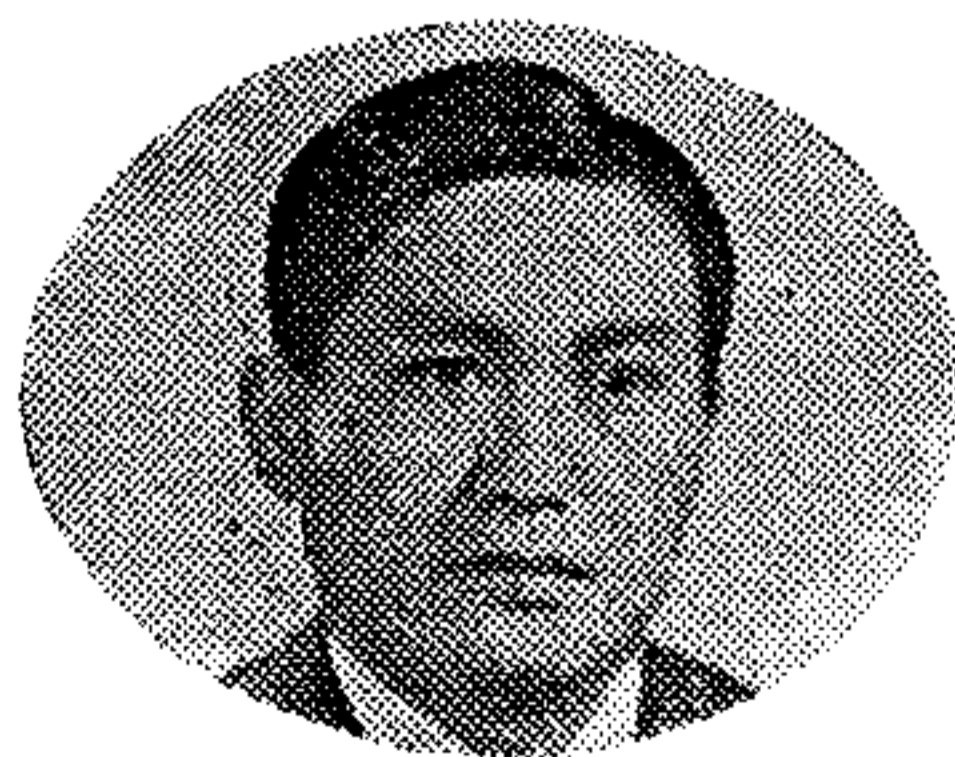
둘째, 雜多한 發言內容을 바로 잡고 高速을 爲主로 하기 때문에 「高血壓」과 「呼吸器疾患」의 危險이 있다.

셋째, mm 를 따지는 精密技能이기 때문에 「神經性胃腸病」을 비롯 많은 「神經性疾患」의 危險이 있다.

이상과 같은 職業病을 想定한다면 우리들 周邊의 健康한 執務를 위한 早期治療와 體質改善을 通해 우리가 바라는 body-building 을 적어도 30代이내에 구축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서 平素 筆者의 經驗을 土臺로 速記士에게 適合하고 時急한 健康療法을 다음 順序에 依해 說明드리고자 한다.

1. 呼吸療法
2. 水飲療法
3. 冷水摩擦療法
4. 指壓療法
5. 요가療法
6. 斷食療法



## 1. 呼吸療法

보통 人間의 健康 4大原則을 ① 快食 ② 快便 ③ 快動 ④ 快睡라고 하여 가장 理想的인 健康법으로 하고 있지만 現代의 雜多한 社會生活은 어느 누구에게도 위 4大原則이 제대로 通用될 수는 없다.

때문에 現實적으로 건강해야겠다는 數多한 人間階層의 健康指針(生活上)은 다음과 같이 提示되고 있다.

- 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 ② 精神的 解放感
- ③ 유쾌한 自己流環境造成
- ④ 상쾌한 空氣
- ⑤ 긴장을 풀어주는 햇빛
- ⑥ 맑고 찬 물
- ⑦ 신선한 食品
- ⑧ 合理的 身體運動

특히 여기에서 一笑一少, 一怒一老라는 말처럼 精神的인 것이 가장 重要함은 두 말할 餘地가 없다. 이러한 精神的인 不安要素를 呼吸法을 通해서 除去하자는 얘기다. 即 뱃속깊이까지 들이마시고 뱉어내는 丹田呼吸法은 어느 경우이건 精神을 맑게 해주고 呼吸器系統의 滿點은 勿論 所謂 「뱃힘」을 기르게 되어 모든 士氣의 根幹을 이룬다.

呼吸法(respiration) : 體內에서 일어나는 燃燒作用에 必要한 酸素를 供給해주고 거기에서 생긴 炭酸 gas 를 體外로 排出하는 現象이다. 換言하면 體內에 攝取된 당류 지방질, 단백질 등을 空氣中の 酸素로 산화하여 energy 를 얻는 現象으로 外呼吸, 內呼吸, 組織呼吸(細胞呼吸)으로 나누어진다.

사람의 肺에는 肺胞가 총수 약 7億이나

되며 그 表面에 毛細血管과 接觸하고 있는 面積은 50~70m<sup>2</sup>. 그리고 血液이 肺胞部를 통과하는 時間은 단지 0.7초 이내이다.

毛細血管도 呼吸의 정도에 따라 擴張 또는 收縮한다. 氣管支와 肺胞는 그 벽에 彈性섬유가 있으므로 肺는 海綿같이 彈力을 가지고 있다. 肺의 表面에는 두층의 肋膜으로 덮여있고 그 두층의 膜사이에는 少量의 液體가 있어 肺의 擴張, 收縮을 돕는다.

肺에서 gas를 交換하기 위해 呼吸운동을 하게 되는데 주로 吸氣筋이 움직여서 吸氣運動이 일어나고 이 근육이 늦추어지면 胸腔은 肺의 彈力으로 자연히 축소되므로 呼氣運動이 일어난다.

이러한 深呼吸를 通해서 呼吸器管 全機能에 強運動을 시켜주자는 것이다.

成人이 安定呼吸을 할때 매번 肺를 드나드는 空氣量은 約 500cc 로서 每分の 呼吸數는 平均 約 16回이므로 1分間의 呼吸量은 約 8l 나 되는 셈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酸素를 들이 마시어서 新陳代謝에 依하여 形成된 炭酸 gas 를 밖으로 내보내는 이 呼吸法을 通해 呼吸器管의 萬全策을 강구해야겠다.

### ① 丹田呼吸

아침 起床하는대로 맑은 空氣를 찾아 두발을 벌리고 두팔을 앞으로 힘차게 뻗치면서 동시에 배꼽아래 3치(약 9cm) 지점에 있는 丹田에 힘을 모아 肺胞가 부풀도록 大氣를 들어마셨다가 다시 역시 丹田에 그대로 힘을 모으면서 五臟六腑에 있는 gas 를 서서히 뱉어낸다(이 動作을 계속해서 10回) 이때 들어마실 때나 뱉어낼때나



丹田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呼吸은 效果가 없다. 이 丹田呼吸法은 평소 勇氣를 기르고 마음을 安定시키는데도 特效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보통 氣습을 넣는다고 할때 이 丹田에 힘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가지 神奇한 것은 아무리 추운 날에도 이 丹田에 힘을 주고 있으면 추위를 느끼지 않으며 아무리 強敵이 앞에 있어도 丹田에 體氣를 모으고 있으면 臨戰態勢가 허물어지지 않는다.

### ② 複式呼吸

두 발은 벌린채 두 손을 모아 턱밑까지 힘껏 끌어올리면서 大氣를 들여마신다. 다시 두 손을 모은 姿勢에서 손가락을 힘껏 펴고 밑으로 내리면서 體內에 있는 gas를 뱉어낸다. 이 動作은 가슴과 배에 힘을 주는 것으로서 10회로 足하다.

### ③ 五管呼吸

반드시 해가 솟아오르는 쪽을 向해 두 발을 벌린채 두 손은 허리에 대고 五管을 전부 연다(開). 即 벌릴 수 있는 한도까지 입을 짹 벌리고 콧구멍을 벌리고 눈을 부릅뜨고 귀를 열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大氣를 들여마셨다가 亦是 그 姿勢대로 숨이 다할때까지 뱉어낸다. 아마 이 呼吸을 처음 해보는 사람은 3회 정도로써 현기증을 느낄 것이다. 여하튼 人體에 있는 모든 門을 활짝 열고 呼吸한다는 氣分으로 해야 되며 最少 10회는 반복해야 된다. 이 呼吸法은 肺活量을 크게 할뿐더러 五管機能의 老衰를 防止하게 하는 效果가 있다.

이상 丹田呼吸, 複式呼吸, 五管呼吸 이 3呼吸法을 每日 實施해서 1個月만 지나면 스스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強한 呼吸器管을 갖게 될 것을 確信한다.

## 原稿募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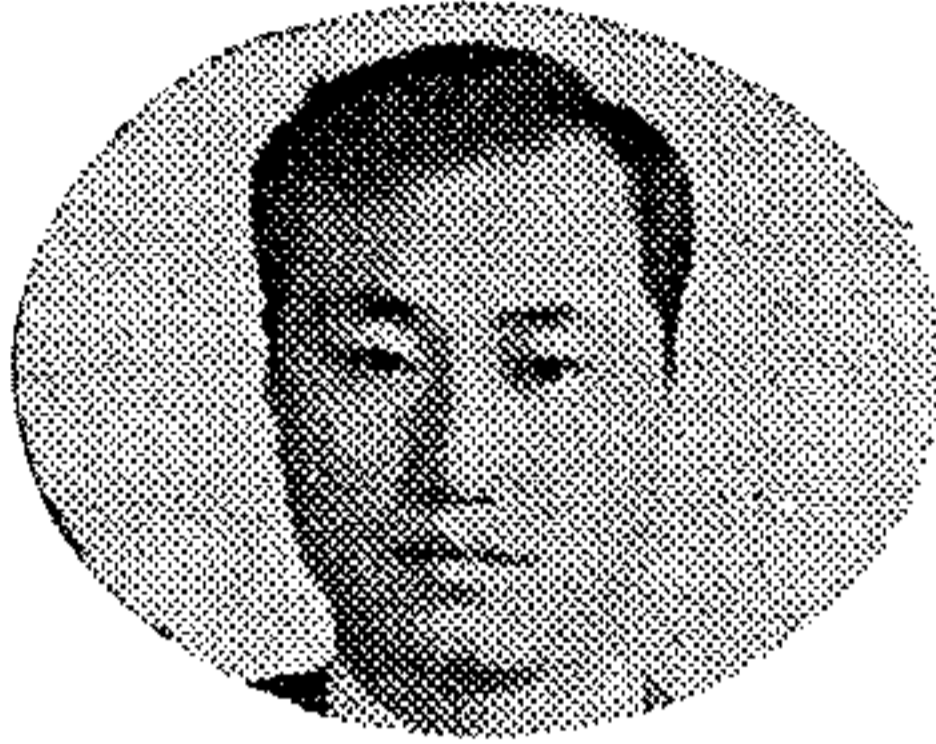
다음 第12號는 12月末에 發刊됩니다. 어디까지나 會員여러분의 權益을 代辯하고 會員相互間의 積極的인 紐帶를 媒介함으로써 速記文化에 寄與코자 함이 本會誌의 發刊취지인 만큼 여러분의 어떠한 內容의 寄稿도 隨時받고 있습니다. 다음 要領에 의해 서슴치 마시고 會誌 編輯子에게 보내 주십시오. 新會員의 寄稿도 환영합니다.

- 表紙그림.....세로 가로 15센티 정도
- 研究論文.....2 백자원고지 15~25枚
- 速記實務.....2 백자원고지 15~25枚
- 回想記.....2 백자원고지 15~25枚
- 隨筆.....2 백자원고지 10~20枚
- 詩, 時調, 散文, 기타 提言등



# 速記士志望生에게

朴 鍾 洽



나는 人生이  
란걸 잘 모른다  
그런데 종종 주  
위사람들로부터  
人生에 關한 質  
問을 받곤 한다

나자신 世上에 나온지 오래지 않고 그나마 職場生活도 日淺한지라 이런 때마다 당황하기 마련이다. 速記士養成所에서의 講師生活만 해도 그렇다. 언젠가 講義時間에 學生들이 하도 지루하게 느끼는 것 같아 몇분동안 自由時間을 주어 무엇이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質問해 보라고 한적이 있다. 제일 먼저 일어난 學生의 물음이 深刻하다.

〈先生님은 왜 國會에 就職을 했지요? 國會에 들어오면 나중에 무엇이 되나요? 그리고 우리들이 速記士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뜻 생각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質問이다. 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하면 이처럼 나를 당황하게 한 것도 없을 것 같다. 나자신 첫 일자리를 왜 國會를 擇했고 여기 있으면 무엇이 될런지 〈흐리멍텅〉한지라 그저 얼버무려 버렸고 더우기 〈速記士가 되는 길〉에 關하여는 막 피어나는 學生들의 希望을 꺾을 수 없어 熱心히 努力하면 길이 열린다고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後悔가 이만저만 아니다. 왜 그때 좀더 誠實히 말해 주지 못했을까…….

速記士養成所의 學生들은 지금 環境이 좋지 않은 地下室에서 工夫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養成所에 들어온 動機야 어떻든 國會速記士가 되든지 或은 다른 職場에 들어가든지간에 하여튼 〈무엇〉을 達成하고자 할 것만은 事實이다. 그런데 이「무엇」이 問題다. 우리는 모두 다 希望이 있다. 速記士를 지망하는 學生들에게도 希望이 있어야 하고 慾求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希望이 現實的으로 이루어지려면 目標(Goal)가 있어야 할 것이다. 目標가 없는 生活은 發展이 없고 指向性(Orientation)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한가스런 마음으로 집을 나온 觀光客이 아니며 크건 작건 자기나름대로의 目標를 가지고 자기의 希望을 꾸준히 實現하는 合理的이고 計劃的이며 發展的인 經濟人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原理는 크게는 速記士가 되는 길에, 작게는 速記士가 되기 위하여 工夫하는 學習態度에도 똑같이 適用된다.

가령 우리가 經濟學을 배우는데 이중 生産費의 法則을 工夫한다고 하자, 生産費의 法則이란 用語를 중 염불하듯 제아무리 많이 암기해도 그 뜻을 알리 없다. 우



선 生産費가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이 法則이 왜 必要한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速記士가 되고자 하는 것도 무턱대고 試驗만 잘 보면 된다는 안이한 態度를 버리고 速記士라는 專門職業(profe ssion)에 對한 긍지가 있어야겠고 速記士가 되면 어디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確固한 目標의 設定과 價値觀의 定立이 先行되

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努力하면 꿈은 이루어 진다. 그 러나 그 꿈은 서서히 이루어 진다. 언제 어디 서나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키워 나갈 때 發展이 있을 것이고 밝은 希望이 남몰래 우리를 찾아온다.

(國會速記士養成所·經濟學講師)

### 제 3 회 국어 영어 속기사 자격검정 시험 공고

1. 응시 자격 : 중·고·대학생 및 일반인으로서 속기를 습득한자
2. 응시 종류 :

국 어 속 기				영 어 속 기			
급수	속도(1분)	번문 시간	정 확 도	급수	속도(1분)	번문 시간	정 확 도
1	320자 이상	15배 이내	95점 이상	1	250단어 이상	15배 이내	95점 이상
2	300 "	"	"	2	200 "	"	"
3	270 "	"	"	3	180 "	"	"
4	240 "	"	"	4	150 "	"	"
5	200 "	"	"	5	120 "	"	"
6	180 "	"	"	6	100 "	"	"
7	150 "	"	"	7	80 "	"	"
8	120 "	"	90점 이상	8	60 "	"	90점 이상

3. 제출서류 : ① 검정 응시 원서 1통  
② 사진(반명합판) 2매  
③ 검정료 국어속기 : 1급~2급 500원  
3급~8급 300원  
영어속기 : 1급~8급 1,000원
4. 원서접수처 :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국회속기사 양성소 ㉠6987)
5. 원서접수기간 : 1972년 9월 20일 ~ 1972년 9월 28일 17:00
6. 검 정 일 시 : 1972년 10월 1일 (일) 09:30

주최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후원 국회사무처  
조선일보사



# 水 仙 花

金 銀 淑

국문학사 시간이었다. 초겨울 햇살이 귀하고 복되게도 창가득히 쏟아지고 있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잎이 저버린 푸라타너스의 마른 가지 새로 싸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듯 채 못진 잎파리가 가녀리게 떨고 있었다.

선생님은 하이얀 얼굴 탕인지 유난스레까만 머리를 부드럽게 웨이브로 손질하시고 입술은 진달래빛 루즈로 예쁘게 그리고 계셨다. 속눈썹이 긴 눈을 감으시고, 오얏씨같은 콧구멍이 곧은 콧날 아래 어엿뻗었다.

선생님은 설명하시는 것이 무척 피곤하신 것이다. 파란 부라우스에 검정 다이트스카트를 입으신 모습이 단아하면서도 싸늘하다.

선생님도 설흔이 넘으셨으니…….

선생님 시간에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고여드는 애잔함 같은 것이 스며든다. 그리고 이유 모르는 심한 갈증같은 증오감도 함께 생긴다.

점심을 먹고 따스한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양양한 삶이라는 것이 30분의 수면보다 만족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동안 국문학사 시간이 되면 아이들은 조율음에 노곤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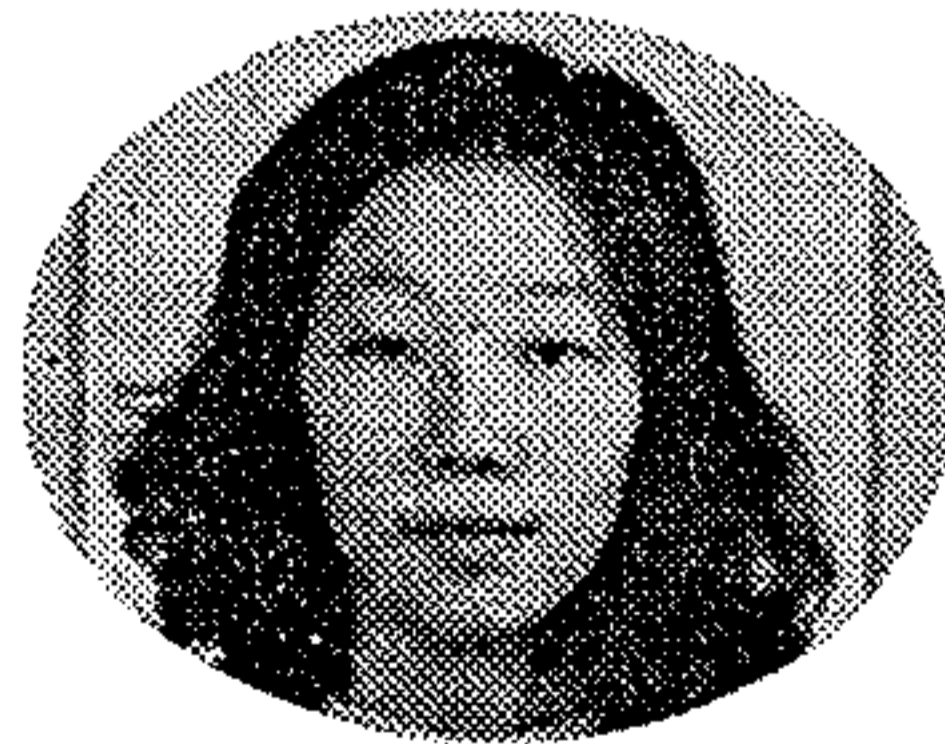
선생님은 시간 내내 거의 눈을 감으시고 설명하신다. 칠판에 필기하실 때와 그것을 우리가 노트에 베끼는 동안에 눈을 뜨고 계실 뿐이다.

마스카라나 아이샤도우와는 거리가 먼 눈이었지만 새카맣고 맑고 상큼한 느낌을 주며, 얇고 하이얀 쌍꺼풀이 지지 않은 눈두덩이 그런 눈을 내리 덮고 있으며 길고 율이 굵은 속눈썹이 하이얀 뺨에 그늘을 드리우는 것이다. 어떤 때 스스로의 요구에 응해서 눈을 뜨기라도 하면 흰자위 검은 자위가 꼭 알맞게 조화되어 꽃처럼 선연히 빛나는 것이다.

선생님도 그런 자세고, 우리들도 모두 잠의 여신에 조롱을 당하는 중 국문학사 시간은 후딱 가버리고 만다. 그래선지 끝나고 나면 웬지 한 구석에 설명할 길 없는 아쉬움이 남게 되었다.

이런 아쉬움 때문인지도 모른다. 자주 선생님은 환영이 사라진 것처럼 그리워지는 것이다.

어느날 아침, 국화를 흰 것으로만 한뫼음 고르다가 예기치 못한 각혈을 하였다. 피가 흰 꽃 위에 붉은 반점이 되어 무너지었다. 숨 막히는 비애가 번져 가는 듯이. 이유 모를 증오감이 솟구치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펍 선생님을 싸늘하며 오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설혼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너무나 자기도 취에 잠겨 있는 것이며, 어쩌면 나르시스의 기분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아이들이 모두 선생님을 경원하여 멀리하듯이 선생님은 결코 우리와 가까워지지 않았다.

초가을에 선생님이 며칠간 학교에 나오시지 않은 적이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 의견이 많았다. 이를테면 약혼 때문이라거나 유학갔던 애인의 귀국때문이라고도 했다.

며칠후 선생님은 주황빛 스웨터에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아름답고 따스하고 생동감에 넘치는 표정이었고 시간에도 가벼운 미소를 머금고 계셨다.

그것은 어느 날의 일이다.

선생님께 찾아 갔다. 교무실엔 혼자 계셨다. 뒤로 감추었던 꽃송이를 번쩍 쳐들었다. 언젠가의 꽃이다. 어느 아침 더러운 피를 쏟았던 꽃이다. 마르고 탐욕스러운 대기마냥 선생님을, 선생님에게 남겨진 생명의 마지막 기운을 마시고 싶어서 간 것이다.

선생님은 다시 옛날로 돌아왔다고 믿고 있었다. 여전히 싸늘하고 이지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지친 청춘의 깊은 집념 따위는 잊었다고 믿고 있었다.

설명을 다 하신 선생님은 필기하도록 시간을 내 주신다. 그리고 비로소 눈을 뜨는 것이다.

가슴이 답답하신지 창을 여신다. 찬바람이 마른 가지 새를 넘어들어온다. 선생님의 검고 술 많은 머리가 바람에 한꺼번에 움직인다. 한 올 한 올의 나부낌이 아

니라 웨이브 진 한 묶음의 머리라는 뜻이다.

창 옆 화단을 내려다 보시더니, 새끼로 밀과 줄기를 퐁퐁 동여 매어 겨울 준비를 한 소나무에 시선을 고정시키신다. 한참 관찰하시더니

「소나무도 겨울에는 단풍이 드는구나.」 하시며 놀라움의 표정을 하신다.

「소나무는 사철 푸르지 않아요?」

우리 중의 누군가가 물었다.

선생님은 아무 말씀없이 누렇게 마른 솔잎 몇개를 따서 손바닥에 놓으시곤 겨울 햇살에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 보신다.

그러시면서

「나도 언제나 푸른 줄로 알았는데, 오늘 처음 알았지.」

하시며 못내 서운해 하신다.

「오늘 중대한 발견을 했구나.」

말하시고선 슬며시 긴 속눈썹으로 눈을 덮으며 가만히 혼자 말로

「소나무조차도……」

× × ×

학교를 졸업한지 2년. 선생님에 대해선 그후 모른다. 알려고 들지 않았던 것이다. 꿈을 동경할 때는 그 곁에 가고 싶지만 가까이 현실로 나타날 때 묘한 반발감이 치미는 그런 심사였는지도 모른다.

끝으로 밝혀 둘 것은 나는 폐병 환자도 아니었고, 한번도 꽃을 들고 선생님을 찾아간 적도 없었다는 점이다.

학교때 나는 선생님을 질투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럽혀 주고 싶도록 사랑하기도 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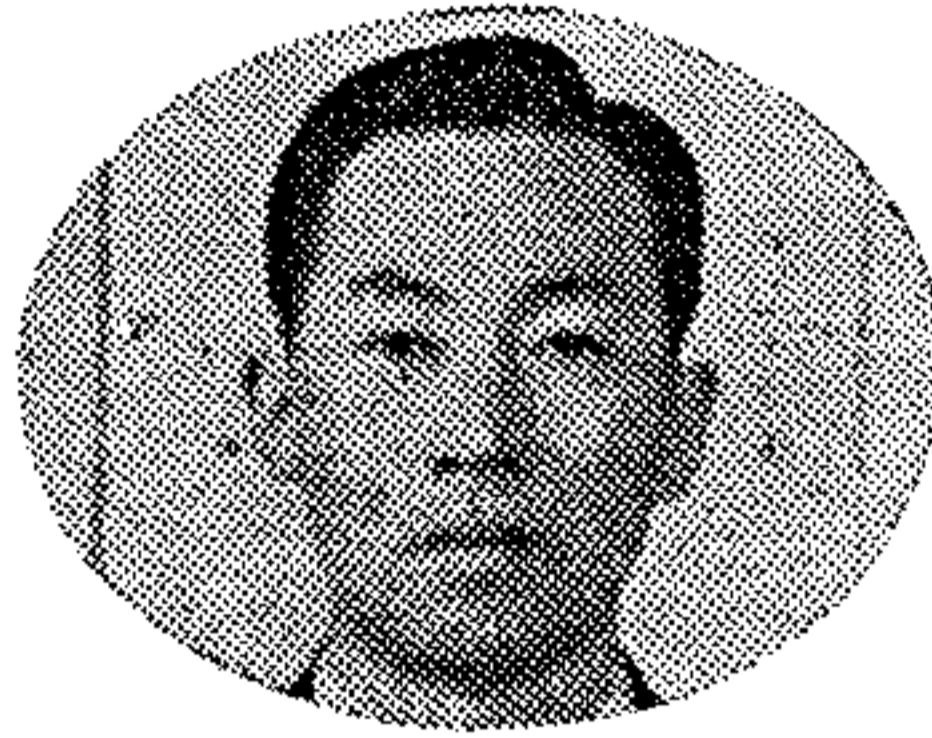
〈國會速記課〉



#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河 大 煥

그러니까 어언 18여년 전인  
고교 재학 시절에 국어 교과  
서에서 읽었던 「안뜰 슈우낙」  
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이라는 제목의 글이 생각키운  
다. 이제 희미하게 기억에 남  
는대로 몇줄 적어보면 우리속



철책가를 왔다갔다 하는 사자의 모습을 볼  
때, 이제는 낡고 퇴색해서 그 내용조차 잘  
알아볼 수 없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편지를  
묵은 편지첩속에서 우연히 발견했을 때 더  
우기 그 글 속에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  
게”라는 서두의 글을……, 우연히 지나가  
던 산길 한모퉁이에 외로이 서있는 한 무덤  
앞에 “여기 16세의 소녀 ○○○가 잠들고  
있다”라는 내용의 비문이 적힌 비석을 대  
했을 때, 오랫동안 만난 다정했던 옛친구  
가 이제는 한목 잡은 회사의 사장으로서 거  
드름 피우며 내미는 그 거만한 손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는 한 가난한 친구의 마음, 술  
에 만취가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女人  
이 좁은 어깨를 비스듬히 가누고 지나가  
는 차창의 모습을 대할 때, 등등 이런 글  
귀들이 생각이 난다.

그러나 앞에 인용한 「슈우낙」이 말하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한가닥 낭만과 감상이 깃드린 前世  
紀的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인 것 같

다. 지금 우리들의 생활 주변  
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로 우  
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은 차  
라리 슬프다 못해 눈물이 나  
도록 처참한, 더러는 이제는  
더 슬퍼할 수도 없는 한결음  
더 나아가서는 슬픔이라기보

다 차라리 분노가 되어 버리는 그런 아픔들  
이 아닌가 생각한다. 수10층짜리 초현대  
식 「빌딩」이 즐지어 서있고 그 속을 드나  
드는 사람들 또한 마치 서양의 어느 귀족  
들의 「파아티」에라도 온듯 화려한 차림새  
에 수백만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손에 낀  
여인의 어설픈 웃음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그 환락가의 뒷골목에 종일토록 허기에 주  
린배를 20원짜리 대포 한잔에 전신이 마비  
되어 쓸어져 있는 한 초라한 지갯꾼의 모  
습을 대할때…… 그 기막힌 사연을 모르는  
행인들은 “낮부터 얼마나 퍼마셨기에 저  
모양이야……” 하고 비웃고 지나가는데…  
찬바람이 몰아치는 영하 20여도의 강추위  
속에 정말 그 어린것들에게는 무슨 죄가 있  
겠는가? 그 얼룩지고 더러운 얼굴에도 천  
진난만한 눈동자를 반짝이는 어린것을 차  
가운 돌바닥위에 앉혀놓고 행인의 동정을  
구하는 한 절인 女人의 모습, 때묻고 더  
럽혀진 그 얼굴에도 아직 한가닥 젊음의  
女心(?)은 깃들어 있는데……

가난에 지치다 못해 밥달라 울부짖는 철없는 어린 자식을 보다못해 물에 던지고 함께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어느 불쌍한 母情을 신문기사에서 읽었을때, 같이 슬퍼도 못하는 우리의 각박한 인심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만든다.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어찌 이뿐이라마는 그래도 이러한 것들은 더러 사람에게 따라서는 한가닥 동정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이니 턱없이 感想에 젖어볼 수도 있다. 비록 이런것들이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비참하고 처참한 일이지는 하지만……

그런데 또 여기에 정말 슬퍼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있으니 이런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자세를 가져야 할른지? 용돈을 아니 준다고 해서 자기 生父母를 칼로 찔러 죽이는 패륜아, 단돈 기십원 때문에 빚어진 시비로 해서 끝내 살인을 하게 되는 非情, 娼女의 피맛힌 돈을 갈취하는 어느 민중의 지팽이……

또 불과 10여년전만 해도 남의 더부살이에 쫓기던 그가 이제 한몫 잡았다 해서 분에도 맞지 않는 호화주택에 고급 외제 승용차에 거드럭 대는…… 그야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짓을 해서 벌었던 지간에 자기가 번돈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고 강변(強辯) 한다면 할말은 없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자기돈을 제마음대로 쓰는데 있어서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와 나아가서는 민족적 양식이 밀받침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그런데 그런것 하나 없이 불쌍한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착취를 하고 건전한 기업인의 자세는 이미 쓰레기통에 버린지 오래고 국가의 채무 나아가 국민의 혈세의

향방은 아랑곳함이 없이 一事有事時에는 외국에 도피할 궁리나 세워놓고 가난한 국민의 눈물나는 재난에도 단돈 기십만원 기부하기를 발발 떠는 그런 망국도배들,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그의 해박한 지식과 사회적 지위 또 그의 前歷으로 보아서도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오직 자신의 권세유지에만 급급한 나머지 시의(時宜)에 따라서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아부맹종하는 정치인(?)의 무절조 등등 참으로 이런 일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人間 그 自然人에 대해서는 한가닥 憐憫의 情을 느끼는 바이나 그 行爲에 대해서는 분노에 몸소리치는 나머지 唾棄를 하게 되고 만다. 그런 者들일수록 비록 가난하나마 人情에 묻혀 살고 정말 순하디 순한 한사람의 人間으로서 쥐꼬리만한 수입으로나마 참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알기를 절인의 때문은 몸에 걸친 절레정도로나 알고, 없어서 하자는 식생활 개선에 계란을 먹고 고기「수우프」에 「토스트」 우유 정도로 식생활을 개선하니 아주 편리하고 좋더라는 말이나 하고 돌아다니니 이 어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아니겠는가? 열기하자면 한이 없다.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그 가난한 마음들을 슬프게 만드는 것들이 어찌 그 뿐이라마는 자꾸만 처참해지는 자신을 위해서도 더 이상은 예를 들지 말자. 나는 자신이 스스로 비참해지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이 향유하는 富와 財貨와 權勢 社會的地位라는 것이 한편 생각하면 얼마나 덧없고 허무한 것인가는 다시 내가 되풀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닌가. 가령 여기 한 人間이 많은 富와 權勢 知識 또 社會的地位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 귀여운 자식들 모든 것을 향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치자. 그가 요지음같은 복잡한 우리 사회에서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치자. 그럴 때에 그가 生前에 所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死者인 그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價値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이겠는가. 그러기에 우리는 이 有限한 肉體가 아니 살아있는 生命體가 生을 영위하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지마는 우리들이 그에 앞서서 가져야 할 정신적 자세는 주어진 生을 현재의 환경이야 좋던 나쁘던간에 있는 그대로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드려서 참되고 진실하게 또 성실히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각자 그가 생각하는 바의 “평범속에 뛰어난 평범”의 생활이 이룩되도록 해서 언젠가는 우리 모

두가 원턴 원치않던 반드시 가야할 그 마지막날에 가서 억울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보람있고 알찬 생애로서 웃으며 눈을 감을 수 있는 人生을 이룩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지나간 그 세월보다 현재가 좀더 나아졌으면 나아진만큼 우리 주위에 아직도 나아지지 못한…… 그래서 우리를 슬프게까지 만드는 그 이웃들을 생각해서 마음속으로부터의 기도와 다짐을 새로히 하며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듯한 슬픈 일들이 사라질 날이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이미 지나온 길고 짧은 人生길이 어느 작가가 얘기했듯이 “人生이란 그렇게 슬픈것도 또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것”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최소한은 그런 인생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國會速記課)

## 人 間 的 眞 價

日本の 어느 學者가 發表한 研究報告에 依하면 「人間을 化學的으로 研究한 結果 人體는 炭酸칼슘을 主로 한 여러가지 要素로 構成되어 있으며 이것을 돈으로 換算하면 1萬圓을 겨우 넘는 價値밖에 없다. 또한 物理的으로 보면 100와트 動力機 1臺分 정도의 힘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人間の 頭腦는 實로 偉大한 것으로서 돈으로 換算할 수도 없고 어떠한 機械로도 代置할 수 없다. 人間の 眞價는 頭腦다」라고 말하고 있다.

速記는 高度의 頭腦勞動이다.

(日本の速記에서)

# 瞬 間 的 思 考

朴 萬 基

얼마전인가 車안에서 苦學生들의 修業이 벌어진 것을 나는 본 일이 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수줍어 하지 않고 대담하게 최경례를 붙이고서 능숙한 열변조로 목청을 뽑아 立場연설을 늘어놓은 다음에 무엇을 사달라고 그 무엇을 승객들 앞에 차례로 내밀었다.

마침내 한 苦學生이 내앞에 와서 그 무엇을 내밀기에 이런 修練도 좋은 일이지만 남들에게 못사주어서 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님을 너도 아는가라고 묻자 스스로 대답하기를,

“알고 있습니다.” 했다.

젊었을 때 人生의 좋은 경험을 얻기 위해서 사서라도 고생을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씨 하나는 가상하다 할 수도 있겠으나 남들에게 폐아닌 폐를 끼치거나 남의 시원치 않은 同情같은 것을 받아가면서 自己의 人生行路를 걸고 싶지는 않다는, 이것이 바로 오래 전에 이미 나의 가슴속에 결정된 人生에 대한 내 나름의 소견이었기에 나는 가만히 두눈을 감고 흔들리는 몸을 가누려고도 않고 생각에 빠져 들어갔다.

人間은 서로 不足한 點을 상부상조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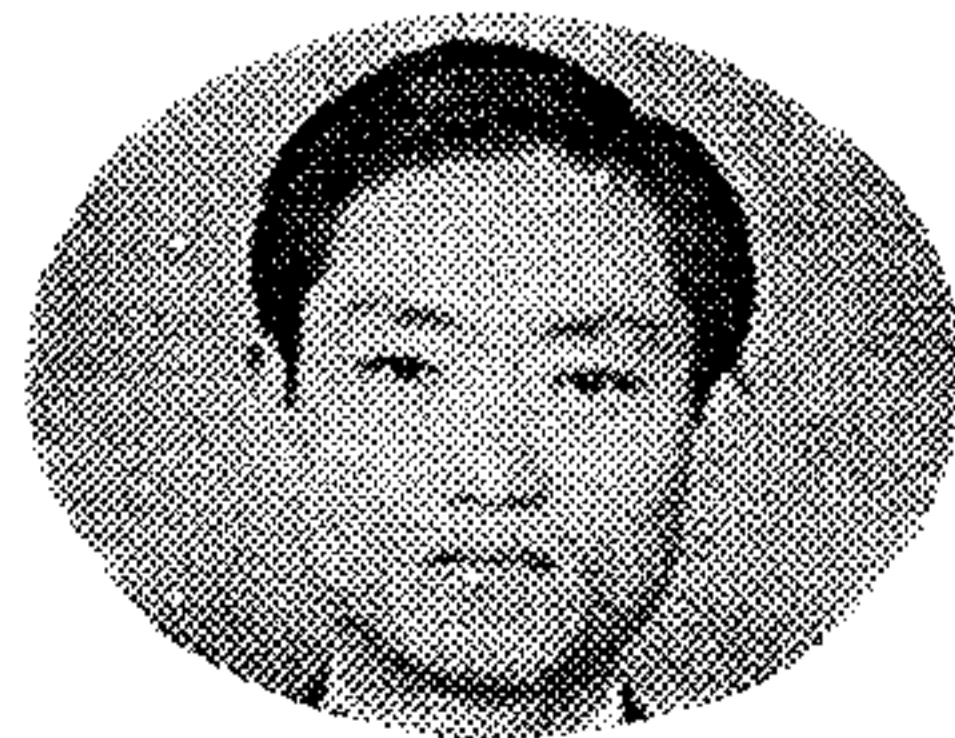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는데 人間의 특이성이 발휘되는 것이며 또 역경을 극복하는 큰 힘도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獨自的으로 人間은 生存하지 못하는 것이다. 약한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고 또 逆境에 處한자를 보면 그의 苦痛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心情은 우주만물중 人間만이 가진 아름다운 마음씨이며, 이로 인하여 成就되는 協助心은 本來 自己의 힘보다 몇十倍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根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弱한 者에게 내가 먼저 힘을 빌려주고 힘이 不足해진 어려운 處地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 必要한 물건을 내 주는 것 등, 아무런 功名心이 없이 남에게 그렇게 하면 후에 내가 弱해지고 力不足해서 困境에 處했을 때 나에게도 이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다. 무슨 功過를 뒤에 바라는 것 없이 弱한 사람, 불쌍한 地境에 있는 자를 돕는다는 것은 理性的 人間으로서의 當然之事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그 苦學生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나 자신이 力量이 없으면서도 나보다 더욱 가련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씨는 가상한 것이지만, 내가





남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반드시 어떤 不作爲 때문에 同情을 사서 救援을 받는 것이므로 give and take란 의미에서는 다소 고려의 여지도 있겠지만 그래도 동정을 받는다는 것은 떳떳하지 않은 것이고, 또 구태어 애써 바랄 필요도 없는 行爲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罪惡的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반드시 옳은 行爲라고는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惡習이요 타성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惡習을 그대로 두다가 이런 일을 예사로 하게 되면 동냥 받는 저지 모양으로 그것을 當然한 일로 여기게 되고 의례히 도움은 남에게 받는 것인양 생각하게 되어 바라는 바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행패까지도 불사하는 수도 생기는 것이다.

결국 依他心만 늘어갈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다.

궁하거나 약한것을 자랑하거나 키울 必要는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自身の 勞力으로 극복 脫피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남의 도움으로 살기를 當然事로 생

각하는 것은 人間이 가진 천부적인 특성인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이런것은 내 팽개쳐야 한다.

결국 善行을 해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기 意志없이 남의 덕분으로 살아 가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結果는 善行이 惡行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慈善家は 남을 돕고 있다는 우쭐한 기분과 내려다 본다는 쾌감을 만끽하고 있는 境地에 서게 되며 이것이 도리어 그런 자를 타락시키고 그 심뽀를 나쁘게 만들 素地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同情은 금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 그들 스스로 보람있는 生을 영위하려고 一線에 나서서 땀흘리는 精神만은 尊敬해야 할 일이다.

오직 참되게 내힘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씨, 구차한 일이지만 그 意志를, 그 勇氣를 잃지않고 곳곳이 人生行路를 걸어가 고자 하는 것이니 그 亦是 장한 일이고 前途에는 成功할 要素가 많이 있는 것이다.

鬪志로 살기 위해서 思索해본다.

(國會速記課)

## INTERSTENO

INTERSTENO 中央委員會가 지난 8月 6日부터 10日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開催되었는데 이 委員會에서는 昨年の 第29回 「부랏셀」大會의 總評과 來年の 第30回 「바렌샤」大會의 「프로그램」이 檢討되었다.

# 資格審査 및 技能檢定規定施行細則

1969. 5. 1 制定  
1972. 9. 9 改正

第1條 (願書提出) 資格審査 및 技能檢定 規定에 依한 資格檢定을 받고자 하는 者는 別表의 所定 願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郵送할 때 는 마감 當日의 消印이 찍혀 있는 것은 有効로 한다.

第2條 (檢定料) 檢定料는 ① 國語速記에 있어서는 一, 二級은 五百원, 三, 四, 五, 六, 七, 八級은 三百원 ② 英語速記에 있어서는 壹千 원으로 하고 願書 提出時에 納付케 한다.

第3條 (出題) 出題는 委員會에서 한다.

第4條 (朗讀) 委員會 決議로 試驗委員을 委 囑할 수 있다.

第5條 (實技試驗) 資格 檢定規定 第12條 實 技試驗의 檢定基準은 同規定 11條에 依하고 實施方法은

國語速記……一級~三級은 演說體(一次) 五分 과 論說體(二次) 五분을 實施한다.

四級~五級은 演說體(一次) 三分과 論說體(二 次) 三分을 實施한다.

英語速記……一級~三級은 商業英語(一次) 五 分과 時事英語(二次) 五분을 實施한다.

四級~五級은 商業英語(一次) 三分과 時事英 語(二次) 三分을 實施한다.

但 各試驗에 있어서 標準速度에 過不足이 顯 著히 나타났을 때에는 內容이 다른 것으로 再 朗讀할 수 있다.

第6條 (採點基準) 國語速記……誤字, 脫字는 每一字에 失點 一字로 計算하고 添字는 每三 字에 失點 一字로 計算하여 滿點을 百으로 하 고 失點字數의 合計가 全體 朗讀字數의 百分

의 몇에 該當하는가를 計算하여 그 數字를 뺀 나머지 數字를 得點으로 한다. 다만 小數點 以下는 四捨五入한다.

英語速記……英文單語의 誤字, 脫字는 한 單 語가 틀린것으로 計算하고 添字와 . , ; : ! ?等 英文符號가 빠진 것하고 大文字가 小文 字로 되어 있는 것은 三個를 合하여 한 單語 가 틀린 것으로 計算하여 滿點을 百으로 하고 失點 單語의 合計가 全體 單語의 百分의 몇에 該當하는가를 計算하여 그 失點한 單語를 뺀 나머지 單語를 得點으로 한다. 다만 小數點 以下는 四捨五入한다. 其他 採點에 있어서 異 議가 생겼을 때는 檢定委員이 協議 決定한다.

第7條 (受驗場內 規律) 受驗場內의 規律은 當該 試驗委員의 指示에 따르고 不正行爲를 한 者는 그 試驗은 無効로 看做한다.

第8條 (資格證書 및 資格證) 檢定試驗 合格 者에게는 合格通知書를 發送하며 本人의 申請 에 依하여 資格證書를 發行한다.

資格證書의 發行 手數料는 三百원으로 한다.

檢定合格者는 檢定合格者 名簿에 登錄되며 登 錄된 者에게는 本人의 申請에 依하여 資格證 을 發行한다. 資格證 發行手數料는 壹百원으 로 한다.

第9條 (速記實務 經歷의 認定) 規定 附則 第 1條에 依한 速記 實務 經歷(5年以上)을 認定 받고자 하는 者는 當該 機關에서 發行하는 經 歷證明을 添付하여야 한다.

## 附 則

이 細則은 1969年 6月 4日부터 施行한다.



速 記 料 金 案 內

本協會에서는 速記料의 現實化를 위하여 지난 1970年 3月 1日이후 施行해오던 速記料金을 改正 다음과 같이 施行하기로 決定 하였습니다.

속 기 요 금 표

구 분	단 위	속 기 료	비 고
회의 및 강연	1 시 간	10,000원	주 주 총 회
좌 답 회	1 시 간	11,000원	대 답 포 함
재판 및 방송	1 시 간	12,000원	
녹 음 재 생	1 시 간	10,000원	
구 술	1 시 간	8,000원	저술, 비서 속기 등
외 국 어	1 시 간	20,000원	영어, 일어

- 단, 1. 요지작성료 : 속기료 외에 매 시간당 5,000원씩 가산함.  
 2. 긴급번역료 : 속기료 외에 매 시간당 4,000원씩 가산함.  
 3.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함.

위와 같이 결정 시행함

1972년 1월 1일

사단 법인 대 한 속 기 협 회

# 會員名單

1972年 9月1日 現在

一連番號	姓 名	法 式	勤 務 處	修 了 年 度
1	姜 駿 遠	서울	서울法式創案者	1935年創案發表
2	金 天 漢	고려	高麗法式創案者	1946年創案發表
3	李 東 根	동방	東邦法式創案者	1948年創案發表
4	張 基 泰	일파	逸波法式創案者	1946年創案發表
5	金 鎭 基	"	國會速記課	1947年修了
6	鄭 源 道	"	"	"
7	吳 潤 玉	"	한국은행	"
8	張 憲 根	"	前國會速記士	"
9	李 圭 洪	"	前國會速記士	"
10	洪 準 杓	"	" (在美)	"
11	金 星 漢	고려	서울城北中學校	1948年修了
12	韓 奎 勳	일파	한국은행	"
13	盧 元 鎬	"	서울民事地法	"
14	韓 奉 永	서울	速記事務所	"
15	柳 浩 龍	일파	한국은행	"
16	具 然 東	서울	時事通信社	"
17	李 鍾 鎬	일파	"	"
18	安 仁 榮	"	國會財務委員會	1949年修了
19	楊 佑 鎭	"	貿易通信社	"
20	尹 載 秀	"	法制處	"



一連番號	姓 名	法 式	勤 務 處	修 了 年 度
21	尹 炳 高	서울	前國會速記士	1949年
22	李 東 淳	중앙	"	"
23	李 柱 範	고려	國會保社委員會	1950年
24	黃 重 秀	"	前高麗速記學院長	"
25	李 廷 仁	서울	國定教科書(株)	"
26	李 璟 熙	한국	前國會速記士	1951年
27	宋 貞 浩	일파	現代無盡(株)	1952年
28	錢 石 根	고려	國會速記課	"
29	全 永 極	"	總務處議政課	"
30	金 承 男	일파	東洋通信社	"
31	李 振 義	"	서울신문社	"
32	李 康 賢	동방	東邦速記學院副院長	"
33	崔 英 泰	일파	前國會速記士	"
34	金 宗 弘	"	前國會速記士(在美)	"
35	梁 源 龍	세종	國會速記課	"
36	崔 孝 燮	고려	홍진產業	1953年
37	黃 圭 鎮	일파	經濟企劃院	"
38	朴 日 采	"	醫學新報社	"
39	徐 萬 福	"	國會速記課	1954年
40	金 允 洙	"	"	"

一連番號	姓 名	法 式	勤 務 處	修 了 年 度
41	姜 萬 根	일파	監查院企劃室	1954年
42	李 甲 熙	"	國土統一院	"
43	朴 雲 建	"	大韓旅行社	"
44	尹 壽 鉉	"	文化公報部	"
45	崔 龍 植	한국	經濟通信社	"
46	鄭 秉 淑	일파	前國會速記士	"
47	朴 貴 順	"	"	"
48	沈 懌 出	한국	서울市教育委員會	"
49	劉 瑢 喆	일파	慶南日報社	"
50	金 哲 淳	"	前國會速記士	"
51	金 永 善	"	國會速記課	1955年
52	金 仁 寧	"	"	"
53	韓 鍾 烈	고려	"	"
54	李 永 實	"	大韓石油公社	"
55	徐 正 南	한국	事 業	"
56	白 廷 鉉	일파	中小企業銀行	"
57	田 凡 成	"	韓國映畫振興組合	"
58	金 百 坤	"	中央情報部	"
59	金 宗 煥	고려	前國會速記士	"
60	林 偉 相	일파	三建土建會社	"



一連番號	姓 名	法 式	勤 務 處	修 了 年 度
61	李 東 一	일파	國會速記課	1956年
62	孫 弘 基	"	"	"
63	高 用 培	고려	"	"
64	徐 平 吉	일파	"	"
65	柳 智 永	고려	"	"
66	崔 明 淑	일파	"	"
67	韓 弘 男	"	中部國稅廳	"
68	全 明 洙	"	中小企業銀行	"
69	文 昌 云	"	商工部特許局	"
70	李 玗 煥	"	前國會速記士	"
71	崔 기 重	"	"	"
72	朴 敬 奎	고려	慶南綜合技術學院長	"
73	尹 在 彬	일파	前國會速記士	"
74	金 明 純	"	前國會速記士(在美)	"
75	金 勳 基	"	國土統一院	"
76	李 良 淳	"	經濟企劃院	"
77	朴 殷 煥	"	前國會速記士	"
78	崔 錫 模	"	國會速記課	1957年
79	徐 秉 運	"	"	"
80	朴 保 和	"	"	"

一連番號	姓 名	法 式	勤 務 處	修 了 年 度
81	申 昌 秀	한국	國會速記課	1957年
82	宋 鍾 學	일파	"	"
83	崔 龍 夏	"	"	"
84	鄭 用 大	고려	總務處考試課	"
85	金 容 煥	일파	援護處	"
86	金 俊 永	"	農協中央會	"
87	徐 允 錫	"	文化公報部	"
88	黃 善 明	"	農協中央會	"
89	李 康 垣	"	鐵道廳總務課	"
90	李 康 萬	고려	勞動廳	"
91	崔 衡 重	일파	리라國民學校	"
92	金 永 浩	"	遞信部	"
93	李 相 烈	"	西江工業社	"
94	金 泰 宣	"	韓國輸出振興公社	"
95	申 世 華	"	國會速記課	1958年
96	全 海 成	"	"	"
97	金 鍾 壽	"	"	"
98	趙 東 植	"	"	"
99	尹 炳 直	"	"	"
100	河 大 煥	"	"	"



一連番號	姓 名	法 式	勤 務 處	修 了 年 度
101	權 龍 太	일파	國會立法調查局	1958年
102	朴 奉 植	"	서울市	"
103	尹 應 遠	"	水協中央會	"
104	韓 弘 仁	"	安養電波管理所	"
105	元 光 淵	"	治安局警務課	"
106	金 允 東	"	國防部總務課	"
107	朴 明 愛	"	前國會速記士	"
108	金 定 子	"	"	"
109	金 鍾 瀚	고려	東洋貨物自動車	"
110	崔 炳 哲	일파	서울市	"
111	金 英 姬	"	國會速記課	1959年
112	金 謙 善	"	"	"
113	朴 光 澤	고려	"	"
114	林 來 炫	동방	"	"
115	李 龍 洙	고려	"	"
116	鄭 應 采	일파	"	"
117	楊 國 鎮	"	"	"
118	朴 萬 基	"	"	"
119	金 東 雲	고려	"	"
120	李 潤 和	일파	"	"

一連番號	姓 名	法 式	勤 務 處	修 了 年 度
121	朴 炅 植	일파	國會速記課	1959年
122	金 秀 旻	"	"	"
123	吳 聖 均	"	國會議事課	"
124	崔 光 錫	고려	國會資編課	"
125	李 康 允	일파	議員秘書室	"
126	崔 鎭 洙	고려	大韓住宅公社	"
127	金 福 振	일파	外換銀行	"
128	閔 丙 高	"	한일카시미론	"
129	金 永 熙	"	中央情報部	"
130	李 瓏 熙	"	前國會速記士(在美)	"
131	李 滿 子	고려	"	"
132	金 基 芳	일파	雙立產業	"
133	申 彥 植	고려	前國會速記士	"
134	朴 大 赫	"	"	"
135	李 秉 雲	"	"	"
136	沈 鉉 洙	일파	"	"
137	孫 相 龍	"	鐵鋼業	"
138	文 鎭 朝	고려	建設部	"
139	趙 載 根	동방	東邦速記學院講師	"
140	李 德 九	일파	國會速記課	1960年



一連番號	姓 名	法 式	勤 務 處	修 了 年 度
141	鄭 明 吉	고려	國會速記課	1960年
142	任 哲 淳	일파	"	"
143	鄭 宇 鎔	고려	"	"
144	楊 澈 在	일파	"	"
145	金 善 弼	동방	"	"
146	梁 和 子	고려	"	"
147	成 千 永	동방	"	"
148	崔 福 任	일파	"	"
149	宋 基 喆	"	"	"
150	宋 博 文	동방	"	"
151	高 在 欽	고려	"	"
152	權 昌 茂	일파	"	"
153	金 基 英	동방	"	"
154	盧 莊 愚	"	"	"
155	鄭 允 模	일파	한국은행	"
156	李 起 同	"	浦項綜合製鐵	"
157	金 中 衡	고려	調達廳	"
158	柳 慶 淑	한국	前國會速記士	"
159	李 大 奉	일파	陸軍本部	"
160	趙 元 濟	"	國防部	"

一連番號	姓 名	法 式	勤 務 處	修 了 年 度
161	李 甲 洙	서울	商 業	1960年
162	金 敬 萬	고려	國會速記課	1961年
163	崔 秉 秀	일파	"	"
164	崔 滉	"	"	"
165	徐 皓 正	"	總務處議政課	"
166	朴 正 鉉	"	靑瓦臺警護室	"
167	田 興 福	"	서울남시	"
168	趙 昌 順	"	前國會速記士	"
169	朱 良 順	"	"	"
170	鄭 晶 子	"	"	"
171	金 達 坤	"	京畿道教育委員會	"
172	元 在 珣	"	前國會速記士	"
173	李 燦 鎔	동방	國會速記課	1962年
174	蔡 康 熙	"	"	"
175	黃 寅 河	고려	"	"
176	姜 宗 遠	동방	"	"
177	高 太 仲	일파	"	"
178	金 源 柱	"	"	"
179	徐 吉 泉	동방	"	"
180	姜 瑞 弘	일파	"	"



一連番號	姓 名	法 式	勤 務 處	修 了 年 度
181	金 永 春	일파	國會速記課	1962年
182	趙 隅 石	"	"	"
183	韓 東 春	동방	新進自動車	"
184	金 熙 子	고려	前國會速記士	"
185	金 庚 善	"	京畿道廳	"
186	申 熙 東	"	國會速記課	1963年
187	李 康 植	"	弘益會	"
188	盧 承 英	"	海兵隊航空監室	"
189	朴 永 植	"	신진工業社	"
190	趙 秉 民	"	서울市教育委員會	"
191	金 正 美	"	國防部	"
192	崔 元 一	동방	東邦速記學院講師	"
193	申 鉉 德	세종	全南每日記者	1964年
194	李 相 鎬	고려	前國會速記士	"
195	崔 松 燮	동방	浦項綜合製鐵	1965年
196	朴 永 萬	한국	警察大學速記講師	"
197	金 泰 元	동방	前國會速記士	"
198	姜 松 熙	고려	國防部	"
199	廉 德 薰	동방	國會速記課	1966年
200	盧 英 民	"	東邦速記學院講師	"

一連番號	姓 名	法 式	勤 務 處	修 了 年 度
201	金 昶 鎮	동방	國會速記課	1967年
202	田 鎮 順	"	新進自動車	"
203	洪 志 英	"	監查院審議室	"
204	李 貞 順	"	韓國道路公社	1968年
205	金 成 浩	"	軍入隊	"
206	全 在 坤	"	國會速記課	1969年
207	鄭 桂 泳	일파	"	"
208	金 致 元	"	"	"
209	尹 玉 姬	고려	"	"
210	李 永 烈	"	"	"
211	李 建 植	일파	文化公報部	"
212	李 錫 雄	"	前國會速記士	"
213	崔 性 周	"	國會速記課	"
214	朴 大 成	"	"	"
215	具 寬 模	고려	軍 入 隊	"
216	河 良 培	"	國會速記課	"
217	玄 炳 高	"	"	"
218	高 隆 繁	일파	"	"
219	沈 喜 淑	동방	서울市企劃管理室	"
220	洪 順 明	"	한국은행	"



一連番號	姓 名	法 式	勤 務 處	修 了 年 度
221	崔 朝 正	동방	韓國鐵鋼	1969年
222	李 賢 熙	의회	國會速記課	1970年
223	金 明 式	"	"	"
224	高 錫 光	"	"	"
225	盧 熙 南	"	"	"
226	梁 順 喜	"	"	"
227	宋 惠 卿	"	"	"
228	吳 준 根	"	"	"
229	洪 淳 寬	"	"	"
230	李 海 南	동방	東邦速記學院	"
231	鄭 盈 澤	"	"	"
232	任 明 心	의회	國會速記課	1971年
233	趙 永 昌	"	"	"
234	朴 順 必	"	"	"
235	李 世 喆	"	"	"
236	安 喜 榮	"	"	"
237	辛 天 教	"	"	"
238	張 淑 卿	"	"	"
239	金 敬 海	"	"	"
240	金 仙 玉	"	"	"

一連番號	姓 名	法 式	勤 務 處	修 了 年 度
241	韓 相 九	의회	國會速記課	1971年
242	金 彩 榮	"	"	"
243	車 公 順	"	"	"
244	李 承 哲	"	"	1972年
245	金 銀 淑	"	"	"
246	李 英 愛	"	"	"
247	崔 禮 淑	"	"	"
248	金 銀 珠	"	"	"
249	李 貞 仁	동방	監查院審議室	"
250	李 元 淑	"	서울우유協同組合	"
251	柳 承 寬	의회	浦項綜合製鐵	"



# 會 務 日 誌

7. 5 定款 第 3 條(目的) 變更許可 (文化公報部)
7. 13 國庫補助申請에 對한 回信(文化公報部)  
2/4分期부터 補助金削減에 따라 支給中斷
7. 14 第35次理事會  
1. 夏季(第11回) 速記講習 開催의件  
2. 會誌(速記界)登錄의件
7. 26 第36次理事會  
1. 夏季速記講習 細部計劃 承認  
2. 文教部施行速記士資格檢定試驗實施內容變更에 대한 建議文發送의件
8. 8~28 夏季速記講習會 開催  
國語速記 324名  
英語速記 80名
8. 22 第37次理事會  
1. 第 3 回 全國速記士資格檢定試驗 實施의件
9. 1 第 9 次 資格審查委員會  
第 3 回 全國速記士資格檢定試驗 實施의件
9. 8 文化公報部 法人體實態調查
9. 9 第38次理事會  
1. 資格審查 및 資格檢定規定施行細則 第 2 條(檢定料)改正
9. 15 第10次 資格審查委員會  
1. 資格審查 및 資格檢定規定施行細則第 8 條(資格證書 및 資格證)改正  
2. 第 3 回 全國速記士資格檢定試驗實施에 대한 細部計劃作成
9. 16 第11次「速記界」編輯委員會

〈總務部〉

## 編輯後記

○ 온갖 「매스·콤」이 南北赤 회담의 갖가지 놀라운 소식들로 법석일 때도 우리 「速記界」編輯陣은 흥분속에서도 조용히 아주 조용히 11호 편집을 끝냈다.

이 역사적인 회담의 심장부에서는, 회담의 청사진을 속속드리 뜨고 있는 速記士의 눈부신 활동이 <平壤> <서울>을 종횡무진 그 기록업무에 분투하고 있음은 우리 全國 速記人들의 큰 자랑이며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J兄 C兄의 건투를 다함께 빈다.

○ 이번 호에 실린 會員名單은 現在까지 協會에 登錄된 全國 速記人들로서 年令上으로도 30여년의 간격을 보이고 있어 隔世之感을 낳게 하고 있다.

60을 바라보는 할아버지 速記士에 이제 갓 스물이 된 손자 速記士가 한데 어울리고 보니 일찌기 몇 안되던 先輩님들이 孤軍奮鬪하던 때를 回想하지 않을 수 없고 보다 훌륭한 후배가 되어야 겠다고 스스로 매질(?) 해야 하게 되었다.

○ <致>라는 대명사로 편집후기를 써야할 速記界의 맹열기자가 훈련소엘 갔다.

코스모스 피어 있는 연병장을 그는 국가를 위해 열심히 뛰겠지. 3주동안에 조그맣고 하얗기만하던 그의 피부에 건강미가 넘쳐 돌아오기를 빈다.

11호의 마무리는 못보고 떠나 있지만 12호에 환기찬 의욕을 기대하면서.....

— 仙 —

### 季刊 速記界 <第11號>

1972年 9月 30日 發行

發行人 金 龍 泰

編輯人 梁 源 龍

印刷 光明印刷公社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서울特別市 中區 太平路 1街 60—1

(75)6987·6940